



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34

1 세상을 향한 시선과 목소리



보는 이와 말하는 이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1) ○ (2) × (3) ○ 02 서술자 03 ㄱ, ㄹ

01 (1) 시인은 자신을 대신할 화자를 세워 독자에게 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2) 시인은 시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 동물, 사물 등을 선택하여 화자로 내세운다. (3) 어조는 화자가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가 목소리라는 형식으로 구체화된 것이므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면 어조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02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들과 이들이 겪는 사건 등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03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의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자신이 겪은 일, 자신의 내면세계를 서술한다(ㄱ). 따라서 독자는 주인공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주인공과의 거리와 가까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ㄹ).

제제 1 「나무의 꿈」

학습곡

009~010쪽

- 010쪽 ① 종결
- ② 친밀감
- ③ 꿈, 가능성
- ④ 도움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010쪽

- 009쪽 (1) 줌 (2) 목선
- 010쪽 (1) 아궁이 (2) 수평선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010쪽

- 009쪽 01 나무 02 ⑤ 03 ⑦ 청각적 이미지, ⑧ 촉각적 이미지
- 010쪽 04 하지만, 지금은 05 ⑤ 06 꿈, 존재

01 이 시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나무'가 마치 사람처럼 미래의 꿈과 소망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02 '한 줌 재'는 나무가 물질적인 형태를 완전히 잃고 사라진 상태, 즉, 꿈이 좌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03 ⑦은 '빼걱'이라는 의성어를 통해 계단을 밟을 때 들리는 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고, ⑧은 피부에 닿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따라서 ⑦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⑧에는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04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반면에,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나무의 현재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5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지금 바람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나무에게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06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되고 싶어 할 만한 대상들을 열거하며 '나무'를 다양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활동

011~012쪽

011쪽 1 의자

012쪽 2 나무

학습곡

011~012쪽

012쪽 ① 시인, 주제, 분위기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1~012쪽

011쪽 01 ④ 02 ⑤ 03 ③

012쪽 04 ④ 05 ④ 06 ⑤

01 이 시의 화자는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꿈을 완전히 실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02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장작'으로 소멸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03 이 시의 화자는 다양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나무를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정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04 이 시의 화자는 나무를 다양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그리면서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긍정하고 응원한다. 이러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05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꿈을 실현하지 못할지라도 가치가 있으며,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나무를 응원하고 있다.

06 시의 화자를 나무로 바꾸면 나무 자신의 내면을 독백 형식으로 드러내게 된다. 즉, 정서 표현이 더 직접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무의 상태를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제재 2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학습목

015쪽 발단 1 소주제: 천수기

- ① 의심
- ② 화가

017쪽 발단 2 소주제: 예술

- ① 애호가
- ② 교차

019쪽 전개 소주제: 장원

- ① 사생
- ② 번호

021쪽 위기 1 소주제: 사생

- ① 제재소
- ② 시집
- ③ 미술

026쪽 위기 2 소주제: 장원

- ① 번호
- ② 크레파스
- ③ 축구

027쪽 절정 1 소주제: 장원

- ① 상
- ② 좌절

030쪽 절정 2 소주제: 그림

- ② 여자아이
- ③ 풍경화

031쪽 결말 소주제: 성인

- ① 역순행적
- ② 미술

013~031쪽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13~031쪽

013쪽 ① ② ③ ④ ⑤

014쪽 ④ ① ⑤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이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⑥ ④

015쪽 ⑦ ④ ⑧ ③

016쪽 ⑨ ② ⑩ ㄱ: 보이지 않는, ㄴ: 보이는 ⑪ ③

017쪽 ⑫ ① ⑬ ②

018쪽 ⑭ ③ ⑮ 사생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⑯ ②

019쪽 ⑰ ② ⑱ ⑤

020쪽 ⑲ ④ ⑳ ⑤ ㉑ 문예반

021쪽 ㉒ ② ㉓ ③

022쪽 ㉔ ④ ㉕ ⑤

023쪽 ㉖ ⑤ ㉗ ⑤ ㉘ 124번

024쪽 ㉙ ⑤ ㉚ ⑤ ㉛ ④

025쪽 ㉚ ③ 새하얀 시멘트, 잊지 못해 ㉛ ⑤

026쪽 ㉛ ① ㉜ ③ ㉝ 백선규

027쪽 ㉞ ⑤ ㉟ ⑤

028쪽 ㉟ ③ ㉛ ④ ㉜ ①

029쪽 ㉞ ① ㉟ ⑤

030쪽 ㉞ ④ ㉟ ⑤

031쪽 ㉞ ④

01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자신의 경험과 심리 등을 직접 서술한다.

모답풀이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2 '나'(0)가 '뭘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라고 진술한 것에서 '나'(0)의 직업이 화가임을 알 수 있다.

03 '나'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04 이 글은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서술자인 '나'(0)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5 화방까지 가서 그림 재료를 살 사람이 흔치 않던 때에 화방에 가는 '나'(0)의 아버지를 보고, '천수기 선생님'은 '나'(0)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화가를 꿈꾸던 친구라고 확신한 것이다.

06 '나'(0)가 "두 사람은 십수 년 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를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어."라고 진술한 것에서 '나'(0)의 아버지와 선생님이 서로를 곧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7 '나'(0)는 아버지와 천수기 선생님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013~031쪽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15쪽 (1) × (2) ○

017쪽 (1) 화폭 (2) 공설

019쪽 (1) ○ (2) × (3) ○

021쪽 (1) 교사 (2) 고명달 (3) 제재소

022쪽 (1) 병석 (2) 풀칠

025쪽 (1) 천부적 (2) 참관

027쪽 (1) 중매 (2) 개근상 (3) 너절한

029쪽 (1) 이례적 (2) 입선

031쪽 (1) 원형 (2) 이상

못한 채 그저 공을 차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모답풀이 ①, ② '나'(0)는 공을 차는 것, 즉 축구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그림 그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③ 천수기 선생님은 아버지와 대화 중에 아버지의 아들인 '나'(0)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⑤ 아버지와 천수기 선생님 모두 '나'(0)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08 ⑥는 '천수기 선생님'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의 서술자인 '나', 즉 '백선규'를 의미한다.

09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서술자가 두 명 등장한다. '0' 부분에서는 '0'의 '나(백선규)'가 '1' 부분에서는 '1'의 '나(여자)'가 각각 이야기를 서술한다.

10 '나'(1)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은 바람 때문에 휘어지는 나뭇가지나 바람에 뒤집히는 우산으로 바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⑦에서 '나'(1)는 백선규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이나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1)와 백선규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⑧와 ⑨는 백선규의 작품에 쓰인 흰색과 검은색이 도깨비나 구미호가 가져다준 물감처럼 보일 정도로 뛰어나다는 뜻으로, 백선규 작품의 예술성을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3 축구 경기에 대한 '나'의 기대와 설렘을 브라스 밴드의 연주 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학예 대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0)는 학예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15 '나'(0)는 군민 체전과 같은 날 열리는 사생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축구 결승전을 보러 갈 수 없었다.

16 <보기>의 사건은 작품 뒤에 참가자의 이름 대신 참가 번호를 적게 하는 사생 대회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⑩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나'(0)가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훔친 것으로 보아 '나'(0)는 매우 아쉽고 슬펐을 것이다.

18 '나'(0)가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한 소식을 듣고 별다른 반응 없이 쑥스럽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아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9 '나'(1)가 그림을 배우게 된 것은, 바이올린 선생님이 무슨 일로 못 오게 된 뒤에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지 아버지가 권유한 것은 아니다.

20 아버지의 말을 전해 들은 '나'(1)는 그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나'(1)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1 '나'(1)는 4학년이 되어서 글짓기를 하는 문예반에 들어갔다. 글짓기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나'(1)는 문예반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

22 '나'(1)는 문예반이지만 글짓기에 재능이 없었고, 집이 부유해서 값비싼 미술 용품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생 대회 대표로 뽑혔다.

모답풀이 ㄱ. '나'(1)는 미술반이 아니라 문예반 소속이다.

ㄹ. '나'의 학교에서 사생 대회가 열린 것은 맞지만, '나'(1)가 사생 대회 대표로 뽑힌 이유와 관련이 없다.

23 '나'(1)는 처음 본 '나'(0)의 웃차림이 지저분하고 '나'(0)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나서 '나'(0)가 기억에 오래 남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24 '나'(0)는 4학년이 되고 나서 미술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문예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4학년이 되기 전에 '나'(0)가 어느 특별 활동반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25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할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인 '나'(0)의 아버지가 개인의 꿈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26 '나'(0)는 화가의 재능을 타고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들처럼 죽어라 미술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27 '나'(0)는 장원 상을 받으면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상품으로 받아 그림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원 상을 받고 싶어 했다.

28 '124번'은 사생 대회에서 '나'(0)가 이름 대신 적기 위해 부여받았던 번호로, '나'(0)는 이 번호를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번호와 관련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29 '나'(0)는 부유해 보이고 예쁜 여자애가 자신과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30 '나'(0)는 1년 전 사생 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해 속상해하였지만, 지금은 축구 결승전 결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생 대회 심사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숙했다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

31 '나'(0)가 평소 좋아하던 축구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계속 교실 쪽을 바라본 것은,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안하고 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린 것이다.

32 '새하얀 시멘트 길', '새하얀 햇빛'에서 시각적 심상을, '포각포각 찍히던 그 발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0)가 심사 결과를 듣기 직전의 순간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33 '나'(0)는 초조하게 기다리던 심사 결과를 듣고 긴장감과 불안감이 해소되었을 것이며, 자신이 원했던 장원 상을 타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34 '절정 1'의 ①에서 '나'(1)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자녀가 학생회장이 될 때까지의 삶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35 '나'(1)는 상이나 돈, 권력 같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36 사생 대회에서 '나'(1)의 그림으로 장원 상을 대신 받은 사람은 '0'의 서술자인 백선규이다.

37 '나'(0)는 사생 대회에서 만난 아이의 인상 때문에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받을 좌절감 때문에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다.

38 '절정 2'의 ①에서 '나'(0)는 자기 학교에서 장원 상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 것에 자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장원작은 맨 안쪽에 다른 작품보다 세 뼘쯤 더 높은 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답풀이 ① 장원작에는 '나'(0)의 크레파스에는 없는 회색이 칠해져 있었다.
② '나'(0)는 그림 뒷면의 번호가 '124'인 것을 확인하였다.
④ 치하 상을 받은 동시에 아이들이 넘길 때 침을 묻혀서 글씨가 지워지고 원고지 아래쪽이 깨매졌다.
⑤ 교장 선생님은 그해 학예 대회 입상작을 찾아와 강당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40 '나'(0)가 강당에서 장원작을 직접 본 후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므로, ⑦은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1 '나'(0)는 장원작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교생 앞에서 장원 상을 받는 것에 우쭐해했지만, 장원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후에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42 모든 것을 그림 속에 육여덟으려고 한 것은 '나'(0)가 그린 그림이다.

43 '나'(0)는 장원작의 주인이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여자아이가 받아야 했을 상을 자신이 잘못 받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 ⑦과 같이 행동한 것이다.

44 '나'(0)는 주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던 일을 떠올리며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실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말하지 못한다.

45 '나'(0)는 사생 대회에서 자신의 작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이 장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나'(0)는 늘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46 '나'(1)는 백선규를 알아보지만, 백선규는 생각에 잠긴 채, '나'

(1)를 보지 못하고 길을 걸어간다. 따라서 백선규가 '나'(1)를 모른 척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활동

033~036쪽

033쪽 1 화가, 스트레스

034쪽 2 눈물, 좌절감, 관점

035쪽 3 밖

학습목표

033~036쪽

036쪽 ① 사건, 1인칭, 3인칭

② 화가, 애호가

③ 차이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33~036쪽

033쪽 01 ③ 02 ⑤

034쪽 03 ⑤ 04 ⑤ 05 ③

035쪽 06 서술자, 시점 07 ① 08 ④

036쪽 09 ④ 10 ⑤

01 이 글은 '0'의 서술자 '나'와 '1'의 서술자 '나'가 등장하여 두 사람의 동일하게 겪은 사건에 대해 각자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② 서술자는 이 글의 주인공인 '0'의 '나'와 '1'의 '나'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0'의 '나'와 '1'의 '나'가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④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0'의 '나'와 '1'의 '나'가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⑤ 두 서술자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서술함으로써 두 서술자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02 '1'의 '나'의 아버지는 여자는 직업을 가질 필요 없이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부장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답풀이 ① '1'의 '나'는 취미로 미술을 감상하는 애호가로 살고 있다.

② '0'의 '나'의 아버지는 기난하지만 '0'의 '나'에게 좋은 그림 재료를 사주며 '나'의 그림 연습을 돋는다.

③ '0'의 '나'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화가이다.

④ '0'의 '나'는 상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1'의 '나'는 상에 욕심이 없다.

03 '1'의 서술자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며 상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모답풀이 ①, ② '나'의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다고만 생각할 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주최 측의 무성의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귀찮아하고만 있을 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의 '나'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을 귀찮아하고 그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뿐,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

04 두 서술자는 서로 장원작의 진짜 주인을 밝힐지 말지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05 두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자의 시점에서 서로 다른 게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에 대해 상상할 필요 없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06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관찰하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를 서술자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관점이나 방식을 시점이라고 한다.

07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일과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08 [A]에서는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심리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모답풀이 ① [A]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② [B]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 [A]와 [B]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A]와 [B] 모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9 '나'의 '나'는 장원 수상작을 바로잡을 경우 이미 상을 받은 아이가 좌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며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다.

10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하지만, 다른 시점의 서술자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한다.

입축 파일

038쪽

- ① 사람 ② 가능성 ③ 재능 ④ 감상 ⑤ 분위기 ⑥ 사건
- ⑦ 독자

발전 활동

039~041쪽

- 039쪽 ① 갈등
- 041쪽 ③ 어린아이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39~041쪽

- 039쪽 ① ① ② ⑤ ③ ①
- 040쪽 ④ ④ 독서 일지 ⑤ ③ ⑥ ②
- 041쪽 ⑦ ④ ⑧ ④

01 '나'는 시인이 말하려는 바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므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②, ④, ⑤는 소설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고 ③은 수필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02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고를 때에는 모둠 구성원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한다. 모둠 구성원들의 수준보다 높은 책을 고를 경우 독서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03 모둠 구성원들이 하나의 책을 선정하여 읽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독서 일지는 독서를 하면서 기록하는 일지로, 읽은 날짜, 페이지, 줄거리, 인상 깊은 내용 등을 적는다.

05 독서 일지를 쓰면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지만, 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6 <보기>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07 서술자는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술자의 특성과 그 효과를 파악해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08 <보기>에서 작품 속의 어린 '나'(옥희)는 '어머니'와 '아저씨'의 행동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답풀이 ①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② 어린아이인 '나'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서술한다고 하였으므로 서술자는 작품 속에 위치한다.

③ 독자에게 말하는 이, 즉 서술자는 어린아이인 '나'(옥희)이다.

⑤ 서술자인 '나'(옥희)는 '어머니'와 '아저씨'의 말과 행동만을 관찰할 뿐 내면 심리는 알지 못한다.

042~044쪽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 01 ① ② ④ ③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고, 내 입사귀를 스치고 가는
- 04 ① ⑤ ⑤ ⑥ ① ⑦ ② ⑧ ③
- 09 ⑤ ⑩ ① ⑪ ⑤

01 4행에서 음성 상징어 '빼직'을 사용하여 '계단'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모답풀이 ② 나무의 꿈을 '의자 → 책상 → 계단 → 창문틀 → 배'로 연쇄적으로 연상하여 나열하고 있다.

③ '되고 싶니', '–할지도 몰라', '–는 거야', '–구나' 등과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무의 꿈과 현재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사람인 것처럼 대하면서 나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19행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로 시상을 전환하면서 바람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나무의 모습이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모답풀이 ①, ③ 이 시의 화자는 다양한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지닌 나무를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꿈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나무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②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네면서 나무와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소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꿈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03 **서술형** <보기>의 '서느런'은 차가운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 시에서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은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고',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이다.

04 ⑦은 나무가 지닌 미래의 꿈이나 가능성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는 현재의 순간으로 시의 초점을 바꾸어 준다(ㄴ). 이를 통해 화자는 나무에게 바람을 만나 흔들리는 현재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가치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ㄱ).

모답풀이 ㄷ. 이 시의 화자는 나무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⑦을 전후하여 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처럼 이 시의 화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시 전체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ㄹ. 이 시에서 '나무'는 시적 대상이었으나 ⑦ 이후에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

05 이 시에서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는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의미하고, '아궁이 속 장작, 한 줌 재'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06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07 (다)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장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장원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0'의 '나'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만큼의 재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1'의 '나'의 그림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풀이 ① '0'의 '나'는 (가)에서 장원 상을 받은 이후에도 수십 번 이런 저런 상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1'의 '나'는 (나)에서 자신은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 본 적 없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1'의 '나'가 백선구('0'의 '나')를 보며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1'의 '나'가 '그 아이'가 받을 좌절감을 떠올리며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서 '1'의 '나'는 자신이 받아야 했을 상을 '0'의 '나'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0'의 '나'와 '1'의 '나'는 모두 어린 시절에 사생 대회 장원 상 수상과 관련한 사건을 떠올리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08 '나'(1)는 상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쥐지 않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③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보기>는 [A]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즉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②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경우 1인칭의 '나'가 등장하지만 <보기>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③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째뚫어 보고 서술하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④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0 ⑦에서 자신이 장원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0)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반면에 ⑧에서는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0)가 주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11 이 글이 '0'의 '나'의 이야기로만 서술될 경우 '1'의 '나'의 내면 세계가 서술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1'의 '나'가 왜 장원 수상 작을 그린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모답풀이 ① '0'의 '나'의 이야기로만 서술되더라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

②, ④ 다른 등장인물들은 말과 행동만 서술되지만, '0'의 '나'의 심리와 내면세계는 직접 서술되기 때문에 '0'의 '나'가 갈등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사건의 경과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③ 독자가 '1'의 '나'의 이야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독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좁아진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활동

045~052쪽

- 045쪽 1 대답, 경청
- 046쪽 2 휴대 전화, 몸
- 047쪽 2 사진
- 3 신뢰, 원활
- 048쪽 1 부상, 걱정
- 049쪽 1 공감
- 2 이해
- 050쪽 2 가치
- 051쪽 1 입장
- 052쪽 4 해결 방안

학습목표

045~052쪽

- 047쪽 ① 주의
- ② 시선, 반응
- 050쪽 ① 대화
- ② 맞장구, 의도
- 052쪽 ① 객관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45~052쪽

- 045쪽 01 ① 02 ④ 03 경청
- 046쪽 04 ② 05 ③ 06 ⑤
- 047쪽 07 ② 08 ④ 09 ②
- 048쪽 10 ③ 11 ② 12 ②
- 049쪽 13 ③ 14 ④ 15 ③
- 050쪽 16 ② 17 ① 18 의미, 감정
- 051쪽 19 ③ 20 ① 21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 052쪽 22 ③ 23 ②

- 01 '뱀'은 '테일러'에게 '타조', '캥거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뿐, '테일러'에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 02 '토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지 않고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으며(ㄹ),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었다(ㄴ).

03 '경청'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주의를 집중하고 공감하며 깊이 듣는 적극적인 듣기 태도를 의미한다.

04 '승우'가 말을 하고 있는 '수호'를 바라보지 않고 후대 전화만 들여다보아서 '수호'는 '승우'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였다.

05 '승우'는 '미래'의 말을 흘려듣다가, "내일 혼자서 강아지를 돌봐야 해."라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잘 볼 수 있겠지?"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한 것이다.

06 대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바로 물어보면 상대의 말이 중간에 끊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묻는 것이 적절하다.

07 '슬기'는 '승우'가 자신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더 이상 말을 이어 갈 수 없었다.

08 자신이 부탁한 것을 들어준 '슬기'에게 ⑦과 같이 말하면, '슬기'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슬기'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⑦은 '슬기'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슬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도록 말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9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상대의 장점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잘못되고 모자라는 점을 들키기 위해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라 볼 수 없다. 경청은 상대와 원활한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이다.

10 '민서'는 배구 대회를 앞두고 손을 다쳐서 대회에 나갈 수 없다.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속상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을 뿐, 손을 다친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다.

11 상대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상대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더 이어 가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하며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12 ⑩은 '민서'가 한 말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다시 말한 것이다.

13 ⑪은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므로 공감하는 말하기로 적절하지 않다.

14 '할머니'는 '경호'를 위해 '경호'의 옷을 삽고 있었으므로, '할머니'는 '경호'가 자신의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5 '경호'는 '할머니'의 정성과 수고를 전혀 이해해 주고 있지 않으므로, '할머니'는 '경호'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속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6 '할머니'는 오래된 웃이더라도 아껴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경호'는 오래된 웃은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17 공감적 대화는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까지 이해하며 나누는 대화이므로, '할머니'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입장이나 처지, 가치관, 생각과 감정 등을 헤아리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8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공감적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이다.

19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에는 시선을 상대에게 고정하고 상대와 눈을 맞추며 들어야 한다.

20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해야 하고(ㄱ), 듣는 사람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한다(ㄴ).

오답풀이 ㄷ. 말을 길게 이어 나가면 상대의 대화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상대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ㄹ. 감정을 숨기고 말하면 상대가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21 ①은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22 <보기>는 먼저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23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 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입축 파일

054쪽

- ① 자세 ② 신뢰 ③ 감정 ④ 격려 ⑤ 경험 ⑥ 관계
- ⑦ 조언

발전 활동

055~056쪽

- 055쪽 ① 경험
056쪽 ② 맞장구, 감정

학습곡

055~056쪽

- 056쪽 ① 질문, 성찰, 개선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5~056쪽

055쪽 ① ③ ② ③

056쪽 ③ ③ ④ ④

01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며 들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④ 상대의 말을 분석하고 지적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상대의 말을 듣고 적절하게 질문함으로써 관심을 표현하고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⑤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02 <보기>에서 '나'는 친구의 진지한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는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3 누나는 동생의 말에 적절한 반응과 질문을 하고 있을 뿐, 동생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누나는 "그랬구나!"와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② 동생은 누나에게 소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④ 동생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누나에게 신이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⑤ 누나는 "어떤 게임을 했어?"와 같이 동생의 말에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04 언어 성찰 일지는 자신의 언어 습관과 태도를 적어 보고 성찰하는 것이므로 친구들이 자주 쓰는 언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57~058쪽

01 ④ 02 ② 03 ⑤ 04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수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시선을 수호에게 고정하며 말을 듣는다.

05 ② 06 ④ 07 ② 08 ① 09 ④

01 이 글에서 '토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지 않고 '테일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으며,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었다. 이러한 '토끼'의 태도에서 '경청'은 귀를 기울여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에서 '테일러'는 다른 동물들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토끼'에게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했고,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03 '슬기'는 '승우'가 부탁한 사진을 찾아왔는데도, '승우'는 '슬기'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둘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04 **서술형** '승우'는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수호'를 바라보지 않고 휴대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몸과 시선을 '수호' 쪽으로 돌려서 '수호'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5 경청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상대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고, 상대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 준다. 친구의 말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듣기 태도와 거리가 멀다.

06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의 감정과 입장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이다. ④는 <보기>의 말하는 이의 감정과 입장 이해하지 않은 채 화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므로 공감하는 대화와 거리가 멀다.

07 상대에게 필요한 조언일지라도 그것을 바로 제시하면, 상대가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충분히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08 (가)에서 '할머니'는 '경호'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애 좀 봐라. 옷 귀한 줄도 모르고."라고 '경호'를 나무라듯 말하고 있다.

09 (나)에서 '할머니'는 물건을 고쳐 쓰고 아껴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경호'는 '할머니'의 입장이나 가치관, 생각에 공감하며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할머니'의 생각을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공감을 표현한 ⑤가 적절하다.

모답풀이 ① '되고 싶니', '–할지도 몰라', '–구나'와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화자가 청자에게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 보는 부분과, 청자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꿈들로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를 제시한 것에서 청자가 '어린 나무'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너'의 자리에 자신을 대입하여 시적 의미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3 ⑤은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고 난 뒤 춤추듯 피어오르는 모습을 드러낼 뿐, 나무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다.

모답풀이 ①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②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 등은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들이다.

④ ⑤의 앞부분에는 주로 미래의 나무의 꿈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⑥에서는 '하지만'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지금'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⑤ 현재 자신을 스치고 가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은 외부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현재의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04 **서술형** '아궁이 속 장작'과 '한 줌 재'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는 가치 없고 실패한 존재로 인식 하지만, 화자는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는 이타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이들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05 ⑤에는 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⑤이다.

모답풀이 ① '종소리'는 귀를 통해 느낄 수 있으므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다.

② 차가운 느낌이나 뺨을 스치는 느낌은 피부를 통해 느끼는 것이므로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다.

③ '흙내음(흙냄새)'은 코를 통해 느낄 수 있으므로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다.

④ '단맛'은 입을 통해 느낄 수 있으므로 미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다.

06 이 글은 '0'의 '나'와 '1'의 '나'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두 인물이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풀이 ① 이 글은 '0'의 '나'와 '1'의 '나'가 어린 시절 겪은 일로 인한 내적인 갈등과 그로 인한 정신적 성장을 다룬 성장 소설이다.

③ 이 글은 '현재'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사건이 전개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④ 두 인물의 서술을 교차하여 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생각이나 대응 방식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59~061쪽

01 ⑤ 02 ④ 03 ③ 04 아궁이 속 장작, 한 줌 재

05 ⑤ 06 ② 07 ⑤ 08 ④ 09 ③ 10 ②

11 ④ 12 ③

01 이 시의 화자는 '나무'를 다양한 가능성과 꿈을 지닌 존재로 그리며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나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모답풀이 ①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는 시인을 대신하여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②, ③ 이 시의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이라고 할 수 있으나, 들꽃이나 바람 혹은 동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하지만, 지금은' 뒤에서 나무가 화자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02 [C]에서는 '–렵'과 같은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부드러운 권유나 당부를 건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07 (다)에서 '0'의 '나'가 '내 앞에는 언제부터인가 여자아이가 두 명 앉아 있었어.'라고 한 것에서 '0'의 '나'와 '1'의 '나'가 같은 장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에서 '0'의 '나'가 '풍경은 내가 그린 것과 비슷했지만'이라고 한 것에서 '0'의 '나'와 '1'의 '나'가 그린 그림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답풀이 ① (나)에서 '1'의 '나'가 글짓기에 재능이 없어서 사생 대회 대표로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0'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그림 뒷면에 124번이라고 적힌 글씨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에서 '0'의 '나'가 아닌 '1'의 '나'가 번호를 잘못 썼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1'의 '나'는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에서 '1'의 '나'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⑧은 '1'의 '나'가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지 않은 이유를 생각한 것일 뿐, 자신의 실수를 '그 아이'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니다. '1'의 '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0'의 '나'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화랑에 전시되고 비싸게 팔린다는 것에서 '0'의 '나'가 유명한 화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글짓기에 필요한 재료들은 주로 비싸지 않은 연필, 지우개, 원고지 등이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농촌 아이들은 주로 문예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③ '1'의 '나'의 크레파스와 '0'의 '나'의 크레파스 상태를 대조하여 '1'의 '나'의 부유한 가정 형편과 '0'의 '나'의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고 있다.

⑤ '0'의 '나'가 장원 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장면에서 '그런데'를 반복하여 '나'가 받은 충격과 당혹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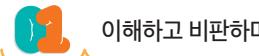
09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보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과 다른 주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내면세계는 서술하지 못한다.

10 '경호'는 '할머니'가 왜 웃을 삶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은 아니다.

11 "그랬구나.", "맞아."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시선 맞추기, 고개 끄덕이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려 줄 수 있다.

12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하면 상대화 신뢰를 쌓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ㄱ),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 상대가 계속 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다(ㄴ).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여 서로 협력하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ㄷ). 상대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감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상대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2 예리하게 읽고, 배려하며 쓰고



이해하고 비판하며 읽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64쪽

01 (1) × (2) × 02 ① 03 ③

01 (1)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이다. (2)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정의'이다.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설명 방법은 '구분'이다. '구분'은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하위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모답풀이 ②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분석은 복합적인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⑤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03 '이유'는 글쓴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의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학습곡

065~071쪽

065쪽 처음 소주제: 동물원

② 정보

066쪽 가운데 1 소주제: 직종

① 구분

② 수의사

067쪽 가운데 2 소주제: 창경원

① 인과

가운데 3 소주제: 형태

① 자연, 체험

끌 소주제: 제안

068쪽 서론 소주제: 논쟁

① 체험

② 존속

069쪽 본론 1 소주제: 동물

① 코끼리, 호랑이, 우산

070쪽 본론 2 소주제: 응호

① 폐사, 야생

071쪽 결론 소주제: 폐지

① 행복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65~071쪽

066쪽 (1) 여론 (2) 식생

067쪽 (1) × (2)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65~071쪽

065쪽 01 ② 02 정의, 구분 03 육상, 해양

066쪽 04 ⑤ 05 ②

067쪽 06 ③ 07 ②

068쪽 08 ① 09 존속 10 ⑤

069쪽 11 ③ 12 ③ 13 인간

070쪽 14 ⑤ 15 ① 16 자연

071쪽 17 연역 논증 18 ① 19 ②

01 동물원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보자고 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동물원'이다.

02 동물원의 개념(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정의'와,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동물을 직접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분'이 사용되었다.

03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는 공통적으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주 키퍼는 육상 동물을, 아쿠아리스트는 해양 동물을 주로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04 큐레이터와 식생 관리자는 모두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지 않는 직종이다. 큐레이터는 동물원에 어떤 동물을 들여오고 전시할지 계획하는 일을, 식생 관리자는 동물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

05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은 동양에서 일곱 번째로 세워진 동물원이다.

06 '가운데 3'에서 최근에 방문객이 직접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형 동물원이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동물원이 동물과 방문객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글쓴이는 '끝' 부분에서 동물원이 변화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을 뿐 동물원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모답풀이 ① 첫 번째 문장 '지금까지 … 알아보았다.'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③, ④ 두 번째 문장 '… 미래의 동물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에서 독자에게 동물원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두 번째 문장 '우리 주변의 동물원을 방문하여 이러한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에서 독자에게 동물원에 방문하여 변화를 체험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08 서론에서 오늘날의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는 장소를 넘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09 서론에서 오늘날 동물원이 지니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존속'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동물원의 좁은 공간은 활동 반경이 최대 800제곱미터에 이르는 코끼리의 활동량을 부족하게 만들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비인간 인격체인 오랑우탄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② 오랑우탄은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처럼 자의식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이다.

④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지니므로, 오랑우탄 또한 존엄성을 지닌다.

⑤ 비인간 인격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비인간 인격체인 오랑우탄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글쓴이는 동물원이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동물 공연에 동원되어 큰 고통을 겪은 '우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3 귀납 논증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으로,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동물원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제시하여, 동물원이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14 동물원의 존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멸종 위기종의 보전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15 2024년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이 무려 4,001마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모답풀이 ②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③, ⑤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 중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동물이 64퍼센트이다. 따라서 자연사한 동물은 36퍼센트라고 할 수 있다.

④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은 무려 4,000마리가 넘는다.

16 글쓴이는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멸종 위기종의 진정한 보전은 동물원이 아니라 '자연', 즉 동물의 본래 서식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이 글의 '결론'에서는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인 동물이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개

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에서 활용한 논증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18 이 글의 결론에는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다.

19 이 글의 글쓴이는 동물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동물은 본래의 서식지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②는 글쓴이가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

모답풀이 ①, ⑤ 글쓴이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위해 동물을 얹입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 ④ 글쓴이는 동물을 동물원이라는 시설에 가두어 본성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⑥ ⑦와 같은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⑦에서는 우리나라 동물이지만 생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의 예로 '호랑이, 사자, 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한 동물의 예는 제시되지 않았다.

모답풀이 ①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동물을 직접 돌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개원 당시 창경원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인과와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비교를 통해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가 모두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④ 대조를 통해 주 키퍼는 육상 동물을, 아쿠아리스트는 해양 동물을 관리한다는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03 동물원의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쓰인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모답풀이 ①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②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복합적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04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05 복합적인 대상인 동물들의 생활 공간을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했다는 결과의 원인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복원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보기>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설명 방법으로는 '인과'가 가장 적절하다.

07 ④의 글쓴이는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8 글쓴이는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물원의 환경이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방문객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반복 행동을 보이는 호랑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이 동물권을 무시한 채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공연에 동원된 오랑우탄 '우탄'이 이상 행동을 보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모답풀이 ㄴ. 글쓴이는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되었다가 사육사를 공격한 오랑우탄 '우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ㄷ. 글쓴이는 동물원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활동량이 부족해지고 질병에 노출된 코끼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멸종 위기종의 보전을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동물원의 멸종 위기종 폐사율과 관련된 2024년의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여 반박하고 있다.

활동

072~076쪽

- 072쪽 1 예시, 주 키퍼, 동물
- 073쪽 2 분석, 인과
- 074쪽 3 본성, 자연사
- 076쪽 4 행복

학습곡

072~076쪽

- 073쪽 ① 정보
- ② 개념, 공통점, 기준
- 074쪽 ① 주장
- 075쪽 ② 주관적, 이유
- 076쪽 ③ 전제, 현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2~076쪽

- 072쪽 01 ④ 02 ⑤ 03 ⑤
- 073쪽 04 ⑤ 05 분석 06 ⑤
- 074쪽 07 ⑤ 08 ③ 09 ①
- 075쪽 10 ③ 11 ⑤ 12 그러므로 소는 새끼를 낳는다.
- 076쪽 13 ⑤ 14 ②

01 ⑦는 설명하는 글이다. 논증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므로, 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답풀이 ①, ② ⑦는 동물원을 중심 소재로 하여 동물원의 개념,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물원의 변화 등을 설명하는 글이다. ③ ⑦는 설명 대상에 맞게 구분, 대조, 비교, 예시, 인과, 정의 등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10 글쓴이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원이 동물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11 논증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갖추려면 예상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ㄴ), 주장과 이유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ㄷ). 또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이유를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ㄹ).
- 12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전제 1과 2를 통해, 포유류인 소는 새끼를 낳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13 귀납 논증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으로, 민석, 계획, 윤서가 귀납 논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하영은 연역 논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4 전제 1에서 모든 생명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려면 동물이 생명체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입축 파일

078쪽

- ① 동물원 ② 형태 ③ 존속 ④ 옹호 ⑤ 정의 ⑥ 비교
⑦ 도구 ⑧ 생명체

발전 활동

079~080쪽

- 079쪽 ① 주장
080쪽 ① 일반화, 중간

학습 콕

079~080쪽

- 080쪽 ① 전체, 판단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9~080쪽

- 079쪽 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② ④ ③ 순환 논증의 오류
080쪽 ④ ③ ⑤ ②

- 01 <보기>는 ‘영지’와 ‘정우’라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삼아 3반 전체의 속성을 일반화하고 있으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논증의 오류는 흑백 논리의 오류이다. 흑백 논리란 모든 문제를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중된 사고방식이나 논리를 말한다.

- 오답풀이**
- ① 무지의 오류는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나 근거로 하여 참이라고 추론하거나, 어떤 주장이 참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나 근거로 하여 거짓이라고 추론하는 오류이다. ‘귀신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귀신은 존재한다.’가 무지의 오류를 범한 예에 해당한다.
 - ② 거짓 원인의 오류는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만으로 그들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닭이 올자 해가 떴다. 즉, 닭이 해를 뜨게 만든 것이다.’가 거짓 원인의 오류를 범한 예에 해당한다.
 - ③ 순환 논증의 오류는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이유나 근거로, 그 주장이나 의견을 다시 제시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 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소수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속성을 일반화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 03 ‘아정’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주장을 다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아정’은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04 ⑦은 ‘그’에 대해 ‘내 편’이 아니면 ‘나의 적’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한정하고 있다. 즉, ⑦은 흑백 논리의 오류에 해당한다. ⑧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즉, 근거가 결론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⑧은 순환 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 05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읽어야 한다. 논증 요소에 해당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의 관계를 살펴보면 논증 오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명 대상’은 논증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빙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81~082쪽

- 01 ④ 02 동물원은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동물을 한곳에 모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이다.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②

- 01 (라)에서 창경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이며, 세계에서 서른여섯 번째, 동양에서 일곱 번째로 세워진 동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수의사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등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② (다)에서 식생 관리자는 동물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나 풀 등의 식물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동물을 한곳에 모아 관람할 수 있

도록 조성한 시설인 동물원에서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현재 과천에는 창경원에서 이전해 온,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서술형** <보기>의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가)의 첫 번째 문장에서 동물원이 어떠한 시설인지 정의하고 있다.

03 ⑦은 ‘대조’를 사용하여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⑨은 ‘인과’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4 (나)에서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는 직종으로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 수의사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지 않는 직종으로 큐레이터와 식생 관리자를 설명하고 있다.

05 동물원의 존속에 대해 대립되는 두 견해는 확인할 수 있지만, 글쓴이는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이다.
- ② (다)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 높다.
- ④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고, (다)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⑤ (다)에서 환경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의 수,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동물의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06 (라)에는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와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개별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 연역 논증에서 전제들이 참인 경우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 ② 두 현상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유추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귀납 논증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 ④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07 ⑦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글쓴이는 동물을 동물원이라는 시설에 가두어 동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위해 동물을 억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⑦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83쪽

01 (1) × (2) ○ (3) × 02 ① 03 특성, 독자

01 (1) 글의 유형에 적합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2) 설명 대상과 주제,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다.
(3) 수집한 자료가 객관적인지 따져 본 뒤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2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3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설명 대상과 내용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면 글을 써야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활동

084~093쪽

090쪽 1 공기, 도파민

2 아이스크림, 인과

091쪽 1 배드민턴

092쪽 3 공통점, 규칙, 정의, 이유

학습곡

084~093쪽

087쪽 1 독자

2 매체

3 개요

090쪽 4 방법, 독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84~093쪽

084쪽 01 ② 02 ③

085쪽 03 ⑤ 04 ⑤

086쪽 05 ③ 06 ④

087쪽 07 ① 08 ④ 09 대조

088쪽 10 ② 11 ③

089쪽 12 ㄴ, ㄷ 13 ⑤

090쪽 14 ⑤ 15 ④ 16 독자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091쪽 17 ② 18 ④ 19 ③

092쪽 20 ④ 21 ③ 22 정의, 비교, 대조 등

093쪽 23 ② 24 ④

01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계획하기’이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정한다.

- 모답풀이** ① 개요 작성하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③, 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에서 할 일이다.
 ④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은 ‘글 쓰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2 ‘준서’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정했을 뿐, 글의 구조는 정하지 않았다.

03 (다)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04 ‘준서’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라)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하준’의 주관적인 의견만 담겨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바)의 표제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40퍼센트가 당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의 당 과다 섭취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06 ‘준서’는 (마)를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8 빙간의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이 ‘아이스크림의 특징’이므로, 빙간에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빙간에는 ④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얼음과 아이스크림의 차이점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대상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10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2문단에서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할 때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활용 했다.

- 모답풀이** ①, ③ 3문단에서 아이스크림과 얼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때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3문단에서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를 설명할 때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2문단에서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11 ‘준서’는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3문단은 아이스크림의 특징 중

부드러운 질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문장은 아이스크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12 ‘준서’는 ⑦에서 제시한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듯하다’라는 추측성 문장이 아닌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겠다고 하였다.

13 끝 부분에서 ‘준서’는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독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슬기롭게 즐길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4 수집한 자료 중에는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수집한 자료를 전부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준서’는 ⑤를 점검하고 있지 않다.

15 고쳐 쓰기 전에는 ‘…들어 있는 듯하다.’와 같이 추측성 문장을 사용하였는데, ⑤에서는 ‘…들어 있다고 한다.’와 같이 명확한 문장으로 바꾸어 썼다.

16 <보기>에서는 ‘형태’와 ‘맛’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7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명하는 글이 아닌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적절한 주제이다.

18 학교 친구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글이므로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계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 누리집, 학교 신문, 학급 계시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이 풍부하게 담긴 자료는 설명하는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0 독자에 대한 당부나 앞으로의 과제 등을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 제시된다.

21 <보기>는 배드민턴의 경기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가운데 2’에서 활용할 수 있다.

22 배드민턴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의 설명 방법을, 배드민턴과 다른 구기 종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때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3 무분별하게 많은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글의 통일성을 해치거나 글의 응집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설명 방법은 설명 대상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4 <보기>는 ‘가운데 2’의 배드민턴의 경기 규칙과 경기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④는 배드민턴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입축 파일

095쪽

- ① 아이스크림 ② 뜻 ③ 당 ④ 구분 ⑤ 얼음 ⑥ 인과
⑦ 종류 ⑧ 도파민 ⑨ 출처

발전 활동

096~097쪽

- 096쪽 ② 인과
097쪽 ③ 도서관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96~097쪽

- 096쪽 ① ④ ② ⑤ ③ ⑥
097쪽 ④ ③ ⑤ ⑥ ④

- 01 기사문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독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우리 학교에 관한 기사문의 주제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다룰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내 과학 동아리의 발명품 전시회 개최'가 우리 학교에 관한 보도 기사문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 03 동아리 학생들이 연기한 전래 동화의 제목들을 예시의 방법으로 제시하면 독자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04 이 기사문에서는 「콩쥐팥쥐」, 「금도끼 은도끼」, 「해님 달님」 등의 이야기 구연동화 공연을 펼쳤다.'가 '무엇을'에 해당한다.
- 05 '전문'은 기사문의 도입부로서 기사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독자가 기사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06 이 기사문은 노후화된 도서관을 재정비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새 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기사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므로 ⑦에는 '쉼과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98~099쪽

- 01 ④ 02 (라)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자료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만 담겨 있으므로 활용할 수 없다. 03 ② 04 ⑤ 05 ④ 06 ⑤

- 01 (다)에서 영국의 신경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뇌의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서술형 (라)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글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설명하는 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03

(마)는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가운데 2'의 '부드러운 질감' 중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아이스크림의 개념은 (가), 아이스크림의 종류는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을 만들어 내는 성분은 (마)의 자료 중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설탕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바), (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에 함유된 당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의 문제점과 당의 적정 섭취량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04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05

(나)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재료를 계속 저으면서 열리기 때문에(원인)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워진다(결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③ (나)에서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과 얼음의 차이점을, 비교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과 얼음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6

⑥은 당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으로 충분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므로 다른 자료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⑦은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므로 이를 '형태'와 '맛'이라는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② ⑧은 아이스크림의 기원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나)는 아이스크림의 특징 중 부드러운 질감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문장을 삭제하여 문장 간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

③ ⑨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잘 모르는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도파민이 '쾌감이나 즐거움 등과 관련된 신경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④ ⑩은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당이 들어 있는 듯하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 누리집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100그램에는 28그램 정도의 당이 들어있다고 한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00~103쪽

-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귀납 논증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③ 11 ③
 12 ⑤

01 (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을 소개하면서 창경원이 개원 당시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모답풀이** ① (가)는 동물원의 개념과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는 직종과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지 않는 직종과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⑤ (마)는 시대에 따른 동물원의 형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02 ⑦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도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소리 내는 방법을 기준으로 악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모답풀이** ① 악기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② 오케스트라는 복합적인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④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금관악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⑤ 첼로와 비올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03 (나)에서 주 키피와 아쿠아리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 키피와 아쿠아리스트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글쓴이는 (라)에서 예상 반론으로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원의 존재를 옹호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모답풀이** ①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는 동물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글을 썼다.
 ② (가)에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 동물원의 환경을 들었다.
 ③ (나)에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동물권을 왜곡하는 동물원의 운영 방식을 들었다.
 ⑤ (마)에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2024년에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동물원에서 보호한다던 멸종 위기종이 오히려 동물원에서 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05 **서술형** (다)에서는 동물원이 동물에게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동물원이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06 ⑦은 야생에 사는 코끼리의 본성과, 그 본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며, 동물원이 동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07 (가)에서 '준서'는 아이스크림의 특징을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글을 쓰겠다고 계획하고 있을 뿐, 아이스크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루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08 <보기>는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당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따라서 '가운데 3'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적합하다. '얼음과 아이스크림의 차이점'은 얼음의 딱딱한 질감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질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모답풀이** ㄱ. 아이스크림의 종류는 구분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ㄴ. 아이스크림의 개념은 정의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10 (라)에서 글쓴이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 누리집의 정보를 인용하며 아이스크림 100그램에는 28그램 정도의 당이 들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 청소년의 당 일일 섭취 권장량은 50그램이라고 하였으므로, 아이스크림 100그램에 일일 권장 섭취량의 당이 들어 있다고 한 것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1 ⑦은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를 제시하지 않아서 뒤죽박죽 섞인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기>는 '형태'와 '맛'이라는 기준으로 아이스크림을 분류하여 각 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 모답풀이** ①, ④ 형태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종류와 맛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아이스크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⑤ ⑦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하지 않아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을 준다. 이에 <보기>는 '형태'와 '맛'이라는 기준에 따라 각각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한 것일 뿐,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쓴 것은 아니다.

12 ⑩는 일상에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모답풀이** ① ⑩는 아이스크림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② 얼음과 아이스크림이 질감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대조하고 있다.
 ③, ④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우리말과 우리글

활동

106~122쪽

- 108쪽 1 뜻, 소리
- 109쪽 1 ㅂ
- 110쪽 2 ㅅ
- 111쪽 3 ㅎ
- 112쪽 1 ㅋ, ㅌ
- 113쪽 2 ㅡ
- 114쪽 2 ㅓ
- 115쪽 1 이중
2 뜻, 발음
- 117쪽 1 가엾게, 스물여덟
- 118쪽 2 모양, ㅂ
- 119쪽 2 ㆁ, 획, ㅇ
- 120쪽 3 ㅓ
- 121쪽 1 자음, ㄱ, ㅋ, 배치
- 122쪽 2 글꼴, 습관

- 111쪽 15 5 16 ④ 17 ① 18 ②
- 112쪽 19 ③ 20 ⑤ 21 ⑦: ㅣ, ㅏ ⑧: ㅕ, ㅕ: ㅖ
- 113쪽 22 ⑦: 평순 ⑨: 원순 23 ① 24 ⑤
- 114쪽 25 ⑤ 26 ⑤ 27 ④ 28 ②
- 115쪽 29 ⑤ 30 ④ 31 ③
- 116쪽 32 ③ 33 ② 34 ③
- 117쪽 35 ④ 36 ⑤ 37 자주 정신
- 118쪽 38 ① 39 ⑤ 40 ①
- 119쪽 41 ④ 42 ⑤
- 120쪽 43 ② 44 ③ 45 ①
- 121쪽 46 ⑤ 47 ⑤ 48 ⑤
- 122쪽 49 ⑤ 50 ㄴ, ㄷ

학습과

106~122쪽

- 108쪽 1 발음, 공기
- 111쪽 2 방해, 여린, 파열음
- 114쪽 3 공기, 평순, 입술
- 115쪽 4 의사소통
- 120쪽 1 한자, 애민
- 2 상형, 사람
- 122쪽 1 음절, 디지털
- 2 글꼴, 한글

01 남학생은 도시락을 ‘싸 오라’는 의미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싸 와서’를 ‘사 와서’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를 본 여학생은 결국 도시락을 사 왔다.

02 ‘자장면’과 ‘짜장면’은 첫 번째 글자의 자음이 ‘ㅈ’과 ‘ㅉ’으로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복수 표준어이다. 하지만 나머지 단어들은 자음 하나 차이로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03 ‘산길’과 ‘손길’은 첫음절의 모음이 각각 ‘ㅏ’와 ‘ㅗ’로 서로 다르고, 나머지 자음과 모음은 모두 같다. 즉, 모음 ‘ㅏ’와 ‘ㅗ’의 소리 차이로 두 단어들의 뜻이 달라진 것이다.

04 ‘물’과 ‘불’은 ‘ㅁ’과 ‘ㅂ’의 소리 차이 때문에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05 ‘돌’과 ‘밀’은 각 글자의 첫소리인 ‘ㄱ’과 ‘ㅁ’의 소리와 가운데소리인 ‘ㄴ’과 ‘ㅣ’의 소리가 다르다.

06 ‘신문사’의 음운은 ‘ㅅ, ㅣ, ㄴ, ㅁ, ㅓ, ㄴ, ㅅ, ㅏ’로 총 8개이다.

오답풀이 ① ‘개구리’의 음운은 ‘ㄱ, ㅋ, ㄱ, ㄱ, ㄴ, ㄹ, ㅣ’로 총 6개이다.
② ‘꼴뚜기’의 음운은 ‘ㄱ, ㄴ, ㄹ, ㄸ, ㄴ, ㄱ, ㅣ’로 총 7개이다.
④ ‘토마토’의 음운은 ‘ㅌ, ㅗ, ㅁ, ㅏ, ㅌ, ㅗ’로 총 6개이다.
⑤ ‘제주도’의 음운은 ‘ㅈ, ㅓ, ㅈ, ㅓ, ㄷ, ㅗ’로 총 6개이다.

07 자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입술, 혀, 입천장, 목청 등의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이다.

08 ‘ㅅ’은 윗잇몸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지만, ‘ㅎ’은 목청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오답풀이 ① ‘ㄱ, ㅋ’은 여린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② ‘ㄴ, ㄹ’은 윗잇몸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③ ‘ㅁ, ㅂ’은 두 입술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⑤ ‘ㅉ, ㅊ’은 선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09 ‘물, 불, 뿔, 풀’의 첫소리에 쓰인 자음 ‘ㅁ, ㅂ, ㅋ, ㅍ’은 모두 입술소리에 해당하지만, ‘줄’의 첫소리에 쓰인 자음 ‘ㅈ’은 선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06~122쪽

- 122쪽 (1) 정체성 (2) 가독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06~122쪽

- 106쪽 01 ②
- 107쪽 02 ⑤ 03 모음 ‘ㅏ’와 ‘ㅗ’의 소리 차이 때문에
- 108쪽 04 ⑤ 05 ⑤ 06 ③
- 109쪽 07 발음 기관 08 ④ 09 ④ 10 ②
- 110쪽 11 ② 12 ⑤ 13 ③ 14 ④

10 ‘다리’의 첫 번째 글자의 첫소리 ‘ㄷ’과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 ‘ㄹ’은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소리 나는 잇몸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모답풀이 ① ‘가슴’의 첫 번째 글자의 첫소리 ‘ㄱ’은 여린입천장,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 ‘ㅅ’은 윗잇몸에서 각각 소리 난다.
 ③ ‘머리’의 첫 번째 글자의 첫소리 ‘ㅁ’은 두 입술,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 ‘ㄹ’은 윗잇몸에서 각각 소리 난다.
 ④ ‘조카’의 첫 번째 글자의 첫소리 ‘ㅈ’은 센입천장,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 ‘ㅋ’은 여린입천장에서 각각 소리 난다.
 ⑤ ‘하늘’의 첫 번째 글자의 첫소리 ‘ㅎ’은 목청,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 ‘ㄴ’은 윗잇몸에서 각각 소리 난다.

11 ‘ㅁ’은 콧소리로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12 ‘ㅎ’은 입안이나 목청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 내는 마찰음이다.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은 파찰음으로 ‘ㅈ, ㅊ, ㅋ’이 해당한다.

14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ㄱ, ㅋ, ㄷ, ㅌ, ㅂ, ㅍ, ㅋ, ㅌ, ㅍ’이다.

15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의 5가지로 나뉘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콧소리, 흐름 소리’의 5가지로 나뉜다.

16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 소리로 ‘ㄱ, ㅋ, ㅋ, ㆁ, ㆁ’이 해당한다. 한편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콧소리로 ‘ㄴ, ㅁ, ㅇ’이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자음은 ‘ㆁ’이다.

17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며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인 거센소리에는 ‘ㅋ, ㅌ, ㅍ, ㅊ’이 있다. ‘쌀밥’에 쓰인 자음인 ‘ㅆ’은 된소리, ‘ㅂ’은 예사소리이고, ‘ㄹ’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별하는 자음이 아니다.

18 ‘땅’과 ‘뻥’은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 – 된소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리의 세기 차이로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모답풀이 ①, ③, ⑤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 – 거센소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리의 세기 차이로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④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 – 된소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리의 세기 차이로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19 모음은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입안이나 목청을 통과할 때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20 단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지만, 이중 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21 ⑦ ‘미안미’에 쓰인 모음 중 ‘ㅣ’와 ‘ㅏ’는 단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⑧ ‘르완다’에 쓰인 모음은 중 ‘ㅡ’와 ‘ㅏ’는 단모음, ‘ㅕ’는 이중 모음이다. ⑨ ‘노르웨이’에 쓰인 모음 중 ‘ㅗ, ㅡ, ㅣ’는 단모음 ‘ㅕ’는 이중 모음이다.

22 단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평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소리 내는 모음으로, ‘ㅏ, ㅓ, ㅗ, ㅓ, ㅡ, ㅣ’가 해당한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모음으로, ‘ㅗ, ㅚ, ㅜ, ㅟ’가 해당한다.

23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ㅐ, ㅓ, ㅚ, ㅟ’는 중모음이지만, ‘ㅜ’는 고모음이다.

24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저모음은 ‘ㅏ’와 ‘ㅓ’이다. 따라서 ‘자매’가 저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25 입천장 가운데를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에는 ‘ㅐ, ㅓ, ㅚ, ㅟ, ㅣ’가 있고,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에는 ‘ㅏ, ㅓ, ㅗ, ㅜ, ㅡ’가 있다.

26 ‘ㅏ, ㅓ, ㅗ, ㅜ’는 모두 후설 모음이지만, ‘ㅣ’는 전설 모음이다.

27 첫 번째 글자에는 저모음인 ‘ㅏ, ㅓ’가, 두 번째 글자에는 고모음인 ‘ㅜ, ㅟ, ㅡ, ㅣ’가 사용되어야 한다. ‘대파’의 첫 번째 글자의 모음인 ‘ㅏ’와 두 번째 글자의 모음인 ‘ㅓ’는 모두 저모음이므로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8 원순 모음에는 ‘ㅗ, ㅚ, ㅜ, ㅟ’가 있다. ‘주소’에 쓰인 모음인 ‘ㅜ’와 ‘ㅗ’는 모두 원순 모음이다.

29 직원이 ‘주완’을 ‘주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기 명단에 ‘주안’으로 써 있는 것으로 보아 ‘주완’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자신의 이름에 쓰인 이중 모음 ‘ㅏ’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서 직원이 ‘ㅏ’로 알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30 만화에는 이중 모음 ‘ㅕ’를 잘못 발음하였거나, ‘ㅕ’를 ‘ㅏ’로 잘못 들어 생긴 오해가 드리난다. 따라서 음운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유의해야 힘을 알 수 있다.

31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2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한 문자가 없었을 뿐, 우리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3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글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다. 하지만 사용하는 말과 글이 다른 데다가 한자는 글자 수가 많고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문자로 소통하기 힘들었다. 이에 백성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므로 한자를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34 훈민정음 자음자의 기본자는 ‘ㄱ, ㄴ, ㅁ, ㅅ, ㅇ’이다.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ㅁ’은 입의 모양, ‘ㅅ’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다.

35 훈민정음 모음자는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뿐 아니라,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를 서로 합하여 만든 글자도 있다.

36 ‘ㅡ’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자의 기본자이다. ‘ㅗ, ㅏ, ㅜ, ㅓ’는 기본자 ‘·’를 기본자 ‘ㅡ’나 ‘ㅣ’와 한 번만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다.

37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 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훈민정음에 담긴 자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38 자음자의 기본 다섯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ㄱ’을,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ㄴ’을, 입의 모양을 본떠 ‘ㅁ’을, 이의 모양을 본떠 ‘ㅅ’을,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ㅇ’을 만들었다.

39 자음자 중에서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ㅁ’이다. 이 글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짐을 나타낸 자음자는 ‘ㅂ’과 ‘ㅍ’이다.

40 ‘ㄱ’은 자음자의 기본자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ㅋ’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소리가 더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ㄱ’과 ‘ㅋ’은 소리의 세기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1 이체자인 ‘օ(옛이응), ㄹ, ㅿ(반치음)’은 각각 자음자의 기본자인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점은 가획자와 같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획자와 다르다.

42 연서의 방법으로 만든 ⑤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쓰지 않지만, 병서의 방법으로 만든 ⑦은 ‘값’, ‘삶’과 같이 여전히 쓰이는 것도 존재한다.

43 초출자는 기본자 ‘ㅣ’나 ‘ㅡ’에 ‘·’를 한 번 합한 글자이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초출자와 재출자는 ‘·’를 합한 횟수가 다르다.

44 ⑦은 초출자로 모음의 기본자 ‘ㅣ’에 ‘·’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반면에 ⑨은 초출자에 ‘·’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므로, ⑦이 ⑨보다 ‘·’를 결합한 횟수가 많다.

45 ‘국어’에 쓰인 모음인 ‘ㅜ’는 ‘ㅡ’에 ‘·’를 한 번 결합한 글자이고, ‘ㅓ’는 ‘ㅣ’에 ‘·’를 한 번 결합한 글자이다. 즉 ‘국어’의 모음인 ‘ㅜ’와 ‘ㅓ’는 모두 초출자이다.

46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⑩은 발음 단위와 표기 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단어의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반면에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⑪은 자음과 모음을 각각 따로 적

으므로 음절과 음절 간의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47 한글 자판을 보면 모음자에는 기본자 ‘ㅣ’와 ‘ㅡ’는 있으나 ‘·’는 없다. 그리고 ‘ㅐ’와 ‘ㅔ’는 초출자 ‘ㅏ’와 ‘ㅓ’에 ‘ㅣ’를 합한 것이다.

48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고, 자판 좌우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내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 준다.

49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글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글 글꼴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점을 소개함으로써 가독성이 높으면서 아름다운 한글 글꼴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50 한글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줄임말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한글 표현을 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축파일

124~125쪽

- ① 발음 ② 뜻 ③ 공기 ④ 파열음 ⑤ ㅎ ⑥ 입술
⑦ ㅐ ⑧ ㅡ ⑨ 가획 ⑩ 사람 ⑪ ·

발전 활동

126~127쪽

127쪽 1 억양, 단음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26~127쪽

- 126쪽 01 ① 02 ③ 03 ③
127쪽 04 ④ 05 ③ 06 ②

01 마지막 문단에서 장단음은 대부분 첫음절에서만 구분하면 되고, 같은 말이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단음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02 우리말에서 소리의 길이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장단음의 구별이 쉽지 않은 탓에 점차 이를 무시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03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한다. 따라서 음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4 우리말에도 소리의 길이가 있는데 소리의 길이는 단순히 길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억양을 살려 주면서 발음을 편리하게 해 주고, 의미의 구별은 물론 말의 품위와 아름다움까지 더해 준다.

05 ①, ②, ④, ⑤의 밑줄 친 단어는 단음이나, ③의 밑줄 친 '연기'는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 내는 일'이라는 뜻으로 장음이다.

오답풀이 ① 말과의 포유류를 뜻하는 '말[말]'은 짧게 발음하는 단음이지만, 일정한 주제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뜻하는 '말[말]'은 길게 발음하는 장음이다.

②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밤[밤]'은 짧게 발음하는 단음이지만, 밤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밤[밤]'은 길게 발음하는 장음이다.

④ 사과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사과'는 단음이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벙울을 뜻하는 '사과[사과]'는 길게 발음하는 장음이다.

⑤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눈]'은 짧게 발음하는 단음이지만,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는 '눈[눈]'은 길게 발음하는 장음이다.

06 '말[言]'은 [말:]로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말[馬]'은 [말]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②에 쓰인 '말'은 동물을 가리키므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⑤ ⑥은 목청으로,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목청소리에는 'ㅎ'이 있다.

04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흐름소리에는 'ㄹ'이 있다. 'ㄴ'은 콧소리이다.

오답풀이 ①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는 'ㄱ, ㅋ, ㅋ, ㄷ, ㅌ, ㅂ, ㅍ'이 있다.

②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에는 'ㅈ, ㅊ, ㅊ'이 있다.

③ 입안이나 목청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마찰음에는 'ㅅ, ㅆ, ㅎ'이 있다.

④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콧소리에는 'ㄴ, ㅁ, ㅇ'이 있다.

05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의 첫소리에는 센입천장소리인 'ㅈ, ㅊ, ㅊ'이,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에는 마찰음인 'ㅅ, ㅆ, ㅎ'이 와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참새'이다.

06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는 것은 단모음이다.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달리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모음이다.

07 '뇌'는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중모음'이고, 'ㅣ, ㅓ, ㅡ, ㅜ'는 모두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고모음이다.

08 평순 모음에는 'ㅏ, ㅓ, ㅓ, ㅓ, ㅓ, ㅓ'가 있고, 후설 모음에는 'ㅏ, ㅓ, ㅓ, ㅓ, ㅓ, ㅓ'가 있다. 따라서 평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인 모음은 'ㅏ, ㅓ, ㅓ'이다. '호두'의 모음 'ㅓ'와 'ㅜ'는 후설 모음이기는 하지만 평순 모음이 아니므로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09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세종 대왕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⑦의 'ㄷ'은 기본자 'ㄴ'에, 'ㅎ'은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획을 더한 것에 소리가 더 세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가획자이다. ⑨의 'ㄹ, ㅇ(옛이응)'도 각각 기본자 'ㄴ'과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획을 더한 것에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이체자이다.

11 'ㄱ'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고, 'ㅌ, ㅌ, ㅋ, ㅋ'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가획자이다.

12 기본자 'ㄱ'과 'ㄴ', 'ㄱ'과 'ㅓ'를 합하여 만든 모음을 초출자라고 하는데, 'ㄴ, ㅓ, ㅓ, ㅓ'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초출자에 'ㅓ'를 한 번 더 결합하여 만든 글자를 재출자라고 하는데, 'ㅍ, ㅍ, ㅠ, ㅠ'가 이에 해당한다.

13 쉽게 읽히고(가독성) 아름다운 모양의(심미성) 글꼴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28~129쪽

- 01 ①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①
08 ⑤ 09 ④ 10 ③ 11 ① 12 ③ 13 ①

01 '강'과 '공'에서 음운 'ㅏ'와 'ㅗ'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지듯이, 말소리 중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02 '커피'와 '코피'의 첫 번째 자음은 'ㅋ', 두 번째 자음은 'ㅍ'으로 동일하지만, '커피'의 모음은 'ㅓ'와 'ㅣ'이고 '코피'의 모음은 'ㅗ'와 'ㅓ'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커피'와 '코피'는 첫 번째 모음 'ㅓ'와 'ㅗ'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

03 그림에서 ⑤은 센입천장으로,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센입천장소리에는 'ㅈ, ㅊ, ㅊ'이 있다. 'ㅅ'은 잇몸소리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인 ⑦에서 나는 소리이다.

오답풀이 ① ⑦은 윗잇몸으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에는 'ㄴ, ㄷ, ㅌ, ㄹ, ㅅ, ㅆ, ㅌ'이 있다.

② ⑤은 입술로,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에는 'ㅁ, ㅂ, ㅍ'이 있다.

④ ⑥은 여린입천장으로,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에는 'ㄱ, ㅋ, ㆁ, ㆁ'이 있다.



두근두근 발표

활동

130~142쪽

- 130쪽 ① 로봇, 친구들
- 132쪽 ② 공학자, ④, ⑤
- 133쪽 ③ 개념, 요약
- 135쪽 ① 경험, 체조
- 138쪽 ② 반응, 강조, 그래프
- 139쪽 ② 질문
- 140쪽 ② 삭제, 기후 위기
- 141쪽 ③ 주제, 개념
- 142쪽 ⑥ 어조, 메모, 발표자

01 아직 자료를 조사하기 전이므로 설문 조사 결과에 조사한 자료의 출처는 나와 있지 않다.

02 윤아네 모둠은 대화를 통해 발표 주제와 목적, 예상 청중을 정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정해 발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발표 장소를 논의하거나 정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④는 한 기업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착용 로봇의 다양한 역할은 확인할 수 없다.

04 ④에서 우리나라에서 착용 로봇을 개발하여 일상적으로 쓰이게 만든 이유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착용 로봇 증가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발표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할 때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발표에 활용할 만큼 중요한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분량이 많은 자료는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②는 자료를 선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②와 ④는 '착용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라는 발표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자료를 선별할 때 제외해야 한다.

07 수집한 자료 중 수치가 많이 제시된 것은 ④이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④와 ⑤이다.

08 '윤아'네 모둠은 도입부에서 발표 주제와 목적을 안내하기에 앞서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사진을 보여 주어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09 '착용 로봇 공학자'라는 발표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도입부에서 할 일이다.

10 발표의 가장 마지막인 정리부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강조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인상적인 표현이나 인용구를 활용하여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다.

11 착용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발표 내용은 선생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발표 주제나 목적에 맞아야 한다.

13 '윤아'가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하고, 발표를 해 본 경험이 적으며,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4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발표 준비와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습과제

130~142쪽

- 130쪽 ① 배경지식, 청중
- 134쪽 ② 목적, 핵심
③ 관심
- 135쪽 ① 불안, 준비, 긴장
- 138쪽 ② 재구성, 도입부, 청중
- 139쪽 ① 불안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30~142쪽

- 130쪽 (1) 중복 (2) 개발
- 131쪽 (1) 급성장 (2) 세분화
- 134쪽 (1) 구분 (2) 실질적
- 135쪽 (1) 착실히 (2) 완화
- 142쪽 (1) 점검 (2) 수행 (3) 개선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30~142쪽

- 130쪽 ① ③ ② ④
- 131쪽 ③ ④ ④ ⑤
- 132쪽 ⑤ ② ⑥ ④, ④ ⑦ ④, ④, ④
- 133쪽 ⑧ ① ⑨ ⑤ ⑩ ②
- 134쪽 ⑪ ④ ⑫ ③
- 135쪽 ⑬ ④ ⑭ ②
- 136쪽 ⑮ ⑤ ⑯ ⑤
- 137쪽 ⑰ ③ ⑱ ⑤
- 138쪽 ⑲ ④ ⑳ ③
- 139쪽 ㉑ 청중의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한다.
㉒ ② ㉓ ⑤
- 140쪽 ㉔ ⑤ ㉕ ② ㉖ ②
- 141쪽 ㉗ ⑤ ㉘ ②
- 142쪽 ㉙ ③ ㉚ ④

15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청중이 보았을 법한 영화의 주인공 사진을 제시하여 발표 주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6 ⑦에서는 대상의 뜻을 명확히 밝혀 풀이해 주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착용 로봇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17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관이 착용 로봇을 사용하는지 묻는 청중의 질문에 발표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18 '윤아'가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아, 단어가 어렵죠?'라는 말을 하며 쉽게 설명했으므로 청중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9 '윤아'는 발표 중간에 '먼저, 다음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착용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은 발표의 순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0 '윤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쉽게 다시 설명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높이고, 청중을 발표에 집중시키고 있다.

21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조사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두면, 발표 중에 청중이 질문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다.

22 발표를 할 때는 특정 부분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거나 크게 하는 등 다양한 어조와 성량을 활용해야 한다.

23 청중이 발표를 들은 후 점검해야 하는 내용에는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였는가,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였는가,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등이 있다.

24 설문 조사의 세 번째 질문에서는 중복 투표를 허용하여 청중의 관심사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

25 제시된 발표 계획서를 보면, 발표자는 기후 위기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를 하려고 한다.

26 ⑦은 기후 위기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다. 자료를 활용하기에 적합하나 '해양 산성화'라는 말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27 정리부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강조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 한다.

28 실패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긴장을 악화시키므로 성공적으로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29 발표를 할 때는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표정,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나 말투, 어조와 같은 준언어적 요소들도 중요하다. 정확한 발음은 언어적 요소에 해당한다.

30 발표를 들을 때는 발표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다음에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떠올리면서 듣는 것은 집중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입축 파일

144쪽

- ① 설문 조사 ② 주제 ③ 재구성 ④ 전개부 ⑤ 성량
- ⑥ 단어 ⑦ 전문가 ⑧ 도입부 ⑨ 사전

발전 활동

145~146쪽

- 146쪽 ① 의미, 의도
- ② 배경지식

학습 콕

145~146쪽

- 146쪽 ① 관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45~146쪽

- 145쪽 ① ⑤ ② ③ ③ ②
- 146쪽 ④ 용어 ⑤ ④ ⑥ ③

01 누나는 야구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용어들의 뜻을 몰라서 누나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2 누나는 동생이 야구 용어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으므로, 동생의 처지나 상황, 입장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할 수 있다.

03 '수지'는 영화를 보는 게 좋을지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을 뜻하는 '우유부단'이 적절하다.

모답풀이

- ①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피는 말을 의미한다.
- ③ '유구무언'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인지상정'은 사람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을 뜻한다.
- ⑤ '확고부동'은 튼튼하고 굳어 흔들림이 없음을 뜻한다.

04 누나는 동생의 눈높이에 맞게 야구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동생은 자신이 알아듣지 못한 용어를 누나에게 명확히 밝혀서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5 '수지'는 시험이 끝나는 날에 집에서 쉬고 싶지만, '진우'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06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01 ① 02 ③ 03 ① 04 (1) 정의 (2) 구분 (3) 예시
05 ⑤ 06 ④ 07 ⑤

01 '윤아'네 모둠은 '착용 로봇 공학자'라는 주제를 정한 뒤 청중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02 발표의 대상을 안내하는 것은 전개부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맞지만, 발표의 의의를 안내하는 일은 구성 단계상 도입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03 <보기>의 자료들은 '착용 로봇 공학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일반 로봇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발표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04 **서술형** 착용 로봇의 개념은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정의', 착용 로봇의 종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 착용 로봇 공학자와 관련한 학과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라)에 따르면 최근 들어 로봇에 특화된 학과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며, 이전에도 컴퓨터 공학과, 기계 공학과, 전자 공학과 등 착용 로봇과 관련된 학과가 존재했다.

06 (가)에서 '윤아'는 착용 로봇과 관련 있는 영화를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7 발표하기 전 충분한 연습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시선 처리 방법을 충분히 익혀야 실제 발표에서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다.

- 모답풀이** ① 자료의 표기가 정확한지 발표 전 다시 확인해야 한다.
② 정확한 발음은 미리 사전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해야 한다.
③ 발표의 차례는 도입부에서 안내해야 한다.
④ 청중의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01 ② 02 ④ 03 ① 04 ④ 05 ② 06 ② 07 ②
08 ④ 09 ·(아래아), ō(여린히읗), ö(옛이응), △(반치음) 10
⑤ 11 ② 12 ② 13 ③ 14 ④ 15 ⑤ 16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01 우리말에서 모음은 하나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02 <보기>의 '강'과 '공'은 모음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관계이다. '솔'과 '실'도 모음 '고'와 'ㅣ'에 의해 뜻이 달라진다.

03 '김밥'의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ㅂ'은 입술소리로 서로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모답풀이 ②, ③ '노래'의 'ㄴ, ㄹ'과 '순대'의 'ㅅ, ㄷ'은 모두 잇몸소리이다.

④ '잡채'의 'ㅈ, ㅊ'은 모두 선입천장소리이다.

⑤ '피망'의 'ㅍ, ㅁ'은 모두 입술소리이다.

04 우리말의 자음 중 잇몸소리는 'ㄴ, ㄹ, ㄷ, ㅌ, ㅅ, ㅆ', 마찰음은 'ㅅ, ㅆ', 된소리는 '긱, ㅍ, ㅃ, ㅉ, ㅋ'이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음은 'ㅆ'이다.

05 ⑦은 단모음, ⑧은 이중 모음이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지만, 이중 모음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뀐다.

06 <보기>의 단어들에 쓰인 모음은 'ㅓ', 'ㅔ', 'ㅚ', 'ㅗ'이다. 이 모음들은 모두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7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인 '말[語]'은 장음으로 발음한다. '말과의 포유류'인 '말[馬]'은 단음으로 발음한다.

08 4문단에서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소리 내는 방법이 아니라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9 **서술형** 모음자 'ㅓ(아래아)', 자음자 'ㅎ(여린히읗), ㅗ(옛이응), △(반치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10 ①~④에 제시된 자음자들은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가획자의 관계이다. 4문단에서 'ㅗ'은 ㅇ에서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는 않는 이체자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ㅑ'는 'ㅏ'에 'ㅣ'를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ㅏ'가 재출자가 아니라 'ㅓ'와 'ㅣ'를 합하여 만든 초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 'ㄴ'은 혀소리로, 발음할 때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이다.

13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법은 '비교',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은 '대조'이다. 따라서 일반 로봇과 착용 로봇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조'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14 (라)에서 발표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나서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해당 법률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15 발표자는 청중의 질문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16 **서술형** ⑦~⑨는 모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청중은 이를 통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4 의미 있는 경험, 나만의 표현



개성적으로 발상하고 표현하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54쪽

- 01 (1) × (2) ○ 02 모순 03 ②

- 01 (1) 반어는 실제와 반대로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강조할 수 있다. (2)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
- 02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나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다. 따라서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모순'이다.
- 03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대상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제재 1 「먼 휴일」



- 155쪽 ① 이별
-
- ② 잊었노라

155쪽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55쪽

- 155쪽 ②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55쪽

- 155쪽 01 ① 02 ①

- 01 화자가 먼 휴일 '당신'을 만나게 될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02 화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재 2 「첫사랑」



- 156쪽 ① 헛송, 황홀
-
- ② 사랑

156쪽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56쪽

- 156쪽 (1) × (2) ○ (3)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56쪽

- 156쪽 01 ⑤ 02 아름다운 상처

- 01 '텐 자리'는 눈꽃이 피었다가 녹은 자리, 즉 첫사랑의 아픈 시련을 의미한다.
- 02 '아름다운'과 '상처'는 의미상 서로 모순되지만, 이 두 의미가 결합함으로써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뒤 한층 성숙해진 사랑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활동

157~160쪽

- 157쪽 1 당신
-
- 158쪽 2 미래
-
- 159쪽 4 첫사랑
-
- 160쪽 5 모순

학습콕.

157~160쪽

- 158쪽 ① 반대, 비판
-
- 160쪽 ② 진실, 의미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7~160쪽

- 157쪽 01 ④ 02 ⑤ 03 ③
-
- 158쪽 04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05 ② 06 ②
-
- 159쪽 07 ② 08 첫사랑 09 ③
-
- 160쪽 10 ② 11 역설

- 01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헤어진 이유나 '당신'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어머니의 '잘했다! 참 잘했어!'는 자식들이 화분을 깨뜨린 일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3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말한 것(표현된 것)과 의미하는 것(숨겨진 것)이 구별된다.
- 04 4연의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라는 시구는 화자가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해 았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시 전체에서 반복된 '잊었노라'가 반어적 표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05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라는 부분을 통해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화자가 실제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어는 상황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06 맥락상 <보기>의 부모님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말 속에는 '텔레비전이 고장 났으므로 새 텔레비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시간(계절) 변화에 따라 '눈'이 '눈꽃'이 되고,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08 이 시는 나뭇가지에 편 눈꽃이 녹고 봄이 되어 그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첫사랑의 아픔, 첫사랑을 겪은 후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9 '따뜻하다'는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라는 뜻이고, '햇살'은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 또는 그 기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따뜻한 햇살'은 두 단어의 뜻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다. 반면 나머지 표현들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결합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에 해당한다.

10 이 시에서는 마침내 이루어 낼 첫사랑을 '황홀'에 비유할 정도로 예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빠르게 잊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보기 1>의 '행복한 이별'과 <보기 2>의 '지고도 이긴 경기'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두 표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은 '역설'이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61~166쪽

162쪽 (1) ㉠ (2) ㉡ (3) ㉡

165쪽 (1) ㉡ (2) ㉡ (3)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61~166쪽

161쪽 01 ③ 02 ③

162쪽 03 ⑤ 04 소인

163쪽 05 ① 06 ④ 07 ③

164쪽 08 ④ 09 ② 10 ⑤

165쪽 11 ⑤ 12 권리, 의무

166쪽 13 ④ 14 ③ 15 도둑놈

01 '양반'은 고을 관청에서 여러 해 동안 곡식을 빌려 먹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였다.

02 아내는 "글 따위는 고을 곡식 갚는 데엔 아무 소용이 없구려!"라고 말하며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아내가 양반의 학문의 깊이에 대해 평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평민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반들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팔시를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04 '양반'은 양반 신분을 '부자'에게 팔고 난 뒤, '벙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걸친 모습으로 군수 앞에 나타나 스스로를 '소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05 '슬기로운 일'은 보잘것없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우러러 쫓는 일을 가리킨다. 맥락상 '보잘것없이 낮은 것'은 천한 신분(평민)을, '높은 것'은 높은 신분(양반)을 의미하므로 ㉠은 평민인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산 것을 의미한다.

06 '군수'는 '양반'과 '부자' 두 사람이 신분 매매를 한 문서를 갖춰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양반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 다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양반 증서는 결국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07 '군수'는 관아로 돌아와 양반 문서의 증인으로 침관할 선비, 농사꾼, 물건 만드는 사람, 장사꾼들을 불렀다. 양반 문서의 증인 신분으로 관찰사를 불렀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08 무과 출신의 벼슬아치인 무관과 문과 출신의 벼슬아치인 문관 양쪽을 함께 일컬어 양반이라 하며,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 문관은 동쪽에 자리한다.

09 ㉡은 단순히 청결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면을 드러낸 것이다. 아니라, 체면과 허례허식에 얹매인 양반의 태도를 풍자한 것이다.

제제 3 「양반전」

학습곡

161~166쪽

161쪽 발단 소주제: 곡식

① 문

163쪽 전개 소주제: 문서

① 소인

② 신분

165쪽 절정 1 소주제: 양반 매매 문서

① 허례허식

166쪽 절정 2 소주제: 특권

① 횡포

결말 소주제: 양반

① 도둑놈

10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 따르면 양반은 옛것을 따라 배우고 높은 뜻을 받들며,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 유황으로 기름등을 밝혀야 한다.

11 문서 끝에는 군수, 좌수, 별감이 증명하기 위해 이름을 적고, 관청의 '통인'이 도장을 찍어 관문서임을 증명하고 있다.

12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는 양반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만을 나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양반 매매 문서의 수정을 요구한다.

13 문서의 '조상 덕에 하는 벼슬일지라도'를 통해 양반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벼슬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습풀이 ① "하늘에서 사람을 낼 때 '글 읽는 선비', '농사짓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백성을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선비가 가장 귀하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선비는 양반이라 부르는데 누구보다 이로움이 많다. 밭을 갈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문과에 오른 사람에게 주는 붉은 증서인 흥패는 두 자 길이밖에 안 되지만 온갖 물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셈이어서 그야말로 돈 자루나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살림이 바닥나 시골에서 가난한 선비로 살더라도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으니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내 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일꾼을 데려다가 김을 매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양반의 특권과 횡포가 담긴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는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말하면서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부자'가 양반의 횡포에 경멸을 느껴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15 '부자'는 양반 매매 문서의 내용을 듣고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 말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간단 체크 활동 문제

- 168쪽 01 ④ 02 ③ 03 양반
169쪽 04 ③ 05 ③ 06 ②
170쪽 07 ③ 08 ③ 09 역설
171쪽 10 ② 11 ①

01 '양반'은 '부자'가 곡식을 갚아 주는 대신 양반 자리를 팔라고 하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바로 양반 신분을 파는 인물이다.

02 ③은 양반으로서 누리게 될 특권으로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의무와 규범이 적혀 있으며 이를 통해 양반의 허례허식을 알 수 있다.

03 '부자'는 "나를 이제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오?"라고 말하며 양반 계급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과 양반의 횡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04 풍자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과장이나 희화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05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학년말에 친구들과 이별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다.

06 실제로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덥다고 말하며 냉방 기구를 더 세게 틀어 달라는 것은 현실과 반대되는 모습을 드러내어 그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모습풀이 ① 방을 냉장고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은유에 해당한다.

③ '처럼'을 사용하여 방 안을 북극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직유에 해당한다.

④ '시원하다'는 의미를 의문문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설의에 해당한다.

⑤ 냉방 기구를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의인에 해당한다.

07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질문이므로, "누구에게 있었던 일인가?"와 같이 타인의 경험을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08 <보기>에는 함께한 시간의 풍경과 사람의 기억의 부재가 나타난다. 따라서 <보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새로운 가치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09 <보기>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놓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보기>의 표현에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10 수필은 글쓴이가 일상 속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생각을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말한다. 수필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활동

168~171쪽

168쪽 1 양반

2 이, 흥패, 양반

169쪽 3 냉방

170쪽 1 시간

학습곡

168~171쪽

169쪽 ① 과장

- 11 <보기>는 모순된 표현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역설이 사용되었다.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77~178쪽

- 01 ① 02 ① 03 ③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⑤

입축 파일

- 173~174쪽
① 당신 ② 상처 ③ 문서 ④ 도둑놈 ⑤ 허례허식
⑥ 부자 ⑦ 작가

발전 활동

175쪽 1 자식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75~176쪽

- 175쪽 01 ① 02 ② 03 반어
176쪽 04 ③ 05 역설 06 ①

- 01 “보고 싶긴 뒷이 보고 싶다고”에서 화자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이 시의 화자는 자식에게 “보고 싶긴 뒷이 보고 싶다고”라고 말하지만, 이 말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이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
- 03 이 시는 그리운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을 반어를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 04 <보기>는 겉으로 모순되는 의미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그 속에 진실이나 주제를 담아 강조하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학적 표현 방식 중 역설에 해당한다.
- 모답풀이** ①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②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④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리듬)이다.
⑤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 05 <보기>의 ‘다 다르지만’과 ‘다 같아’는 의미상 모순되지만, 이를 통해 ‘너희’ 모두 소중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쓰인 표현 방식은 역설이다.
- 06 반어는 말과 실제 뜻이 반대되는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의도와 표현의 불일치가 있다.

- 01 (가)는 1~4연에서 ‘~면 ~잊었노라’와 같이 구조가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2연에서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반복과 ‘~겠지’라는 종결형 어미의 반복,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같은 유사한 말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모답풀이 ② (가)는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인 ‘~면’을 사용하여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③ (나)는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며 눈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희생과 인내라는 의미를 발견하고 있지만, (가)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④ (나)에는 ‘싸그락 싸그락’과 같은 의성어,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되었지만, (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나)에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02 ‘먼 훗날’은 정해진 어떤 날이 아니고 언젠가 ‘당신’이 화자를 찾을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날이다.

- 03 (가)는 화자가 시적 대상인 ‘당신’이 자신을 찾거나 나무랄 때를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대화 형식을 확인할 수 없다.

모답풀이 ① 모든 시행을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과 같이 3음 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② 1~4연을 모두 ‘잊었노라’라는 말로 끝맺으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잊었노라’는 화자가 실제로 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잊지 못겠다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⑤ 1연에서 3연으로 갈수록 ‘잊었노라’ →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와 같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 04 점충법은 어떠한 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비중이나 정도를 한 단계씩 높여서 뜻을 점점 강하게, 높게, 깊게 총을 이루어 독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표현 방법이다. (나)에서 점충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모답풀이 ① ‘눈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흐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 비유하고 있고, 봄에 피어난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비유하고 있다.

②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노력을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③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두드려 보았겠지’, ‘춤추었겠지’와 같이 표현하며 눈을 의인화하고 있다.

④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05 이 시에서 '눈'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녹아 사라지거나 흘날려 버리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바람 한 자락 불면 흐 날아갈'은 첫사랑의 순간적인 면을 의미할 뿐 첫사랑의 설렘과는 관계가 없다.

06 '양반'이 고을 관청에서 벌린 곡식을 대신 갚아 준 인물은 '부자'이다. '부자'는 '양반'의 곡식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양반'에게서 산다.

07 (나)에서 '부자'는 식구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자'는 천대받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반 신분을 사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8 [A]는 '아내'가 '양반'을 질타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양반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79~188쪽

- | | | | | |
|------|----|-------------------------|----|---|
| 179쪽 | 01 |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02 | □ |
| 180쪽 | 03 | ④ | 04 | ⑤ |
| 181쪽 | 06 | 복합양식성 | 07 | ③ |
| 182쪽 | 08 | 거리, 각도 | 09 | ③ |
| 183쪽 | 10 | 장면 번호 | 11 | ① |
| 184쪽 | 12 | ④ | 13 | ① |
| 185쪽 | 14 | ③ | 15 | ④ |
| 186쪽 | 16 | ③ | 17 | ③ |
| 187쪽 | 18 | ④ | 19 | ④ |
| 188쪽 | 20 | ① | 21 | ④ |
| | 22 | ④ | | |

01 제시된 대화에 따르면 민재네 모둠은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에 출품할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재네 모둠의 영상 매체 자료 주제는 '교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방법'이다.

02 민재와 친구들은 자기네 학교 학생들(르)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에 영상을 출품하려고 한다.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한 목적(느)으로 3분 내외의 분량(ㄱ)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03 영상 매체 자료의 판매 가격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한 후에 공유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만드는 영상 매체 자료이므로 판매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수용자의 반응은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한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계획서에는 포함할 수 없다.

05 <보기>의 영상 광고의 수용자는 학생들이므로 동네 주민들에게 영상을 공유하자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06 문자, 소리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여러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복합양식성이라고 한다. 그 중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07 스토리보드는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정리한 것으로, 연기자의 행동, 대사와 자막,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배경 음악과 효과음 등 촬영에 필요한 요소를 기록한다. 공유 매체는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화면 속 대상의 크기와 대상을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각 장면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게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른 촬영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활동

179~188쪽

- | | | |
|------|---|---------|
| 180쪽 | 2 | 독서 |
| 184쪽 | 2 | 효과음, 자막 |
| 188쪽 | 2 | 과속 |



학습곡

179~188쪽

- | | | |
|------|---|-----|
| 180쪽 | ① | 역할 |
| 184쪽 | ① | 문자 |
| | ② | 대사 |
| 186쪽 | ② | 주제 |
| 188쪽 | ① | 저작권 |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79~188쪽

- | | | | | |
|------|-----|----|-----|-----|
| 184쪽 | (1) | ⑦ | (2) | ⑦ |
| 186쪽 | (1) | 자막 | (2) | 효과음 |

09 로 앵글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른 촬영 방법 중 하나로,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나머지는 카메라의 거리에 따른 촬영 방법에 해당한다.

- 모답풀이**
- ① 대상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 ② 대상의 전체를 화면에 가득히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 ④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 ⑤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10 장면 번호는 스토리보드에 'S# 1', 'S# 2'와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신념이라고 한다.

11 스토리보드를 보면 출연자로 소심, 행복, 까칠 선배와 두 후배가 나오고 있고 이들의 대사가 작성되어 있지만 따로 해설자의 대사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12 문자, 소리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여러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복합양식성이라고 한다.

- 모답풀이**
- ① 장면 그림은 스토리보드에서 이야기나 상황의 특정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말한다.
 - ② 장면 내용은 해당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약하거나 설명한 것을 말한다.
 - ③ 스토리보드는 주요 장면을 앞으로 완성해야 할 영상에 가장 가깝게 그림이나 사진 따위로 정리한 장면 연출 판을 말한다.
 - ⑤ 영상 매체 자료는 정보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달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13 스토리보드는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정리한 것이다. 제작 목적과 예상 수용자는 스토리보드가 아니라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에 작성하는 내용이다.

14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화면 속 대상의 크기가 달라지며, 각도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진다. ⑧는 선배가 옆자리의 후배를 바라보는 모습이 잘 나오도록 미디엄 솟과 하이 앵글로 촬영하였다. ⑨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두 학생의 모습이 보이도록 미디엄 솟과 로 앵글로 촬영하였다.

15 편집 단계에서는 이미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자막과 효과음을 넣거나, 화면 크기와 배경 음악의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등 영상 후반 작업을 수행한다. 카메라의 각도 조절은 영상 촬영 단계에서 할 일이다.

16 영상 매체 자료의 장면을 편집할 때는 계획한 주제와 제작 목적에서 벗어난 장면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자막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넣는다. 모든 장면에 자막을 넣으면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18 민재네 모둠은 영상 매체 자료를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 글로 올렸다. 이는 지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게시 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답풀이

- ① 하민, 준우, 지수 같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댓글로 게시물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다.

- ② 특정 핵심어 앞에 '#' 기호를 붙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데이터 태그의 한 형태인 해시태그(hashtag)를 사용하여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 ③ 하트 표시의 수나 댓글의 내용, 공유된 수 등으로 게시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복합양식성은 문자, 소리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여러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재네 모둠이 올린 게시물에도 문자와 영상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19 지수는 안내문보다 영상 매체 자료가 더 흥미롭고 내용도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영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남기고 있다.

20 책은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적 매체이다.

21 댓글을 작성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나 상처를 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지닌 댓글 작성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 모답풀이**
- ①, ② 다른 모둠이 만든 영상 매체 자료를 본 후 댓글을 남길 때는 긍정적인 감상이나 칭찬할 점을 적는 것이 좋다.
 - ③ 댓글을 작성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⑤ 댓글에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을 갖게 된 이유를 함께 제시하면 이후 영상 매체 자료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2 영상 매체 자료에 대한 댓글을 바탕으로 이후 영상 매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댓글을 통한 쌍방향성 소통은 필요하다. 또한 다른 모둠이 만든 영상에 댓글을 달 때에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삼가도록 하며, 의견과 함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입축 파일

190쪽

- ① 음악 ② 시각 ③ 감독 ④ 장면 ⑤ 편집
- ⑥ 개인 ⑦ 풀 ⑧ 눈높이 ⑨ 로

발전 활동

191~192쪽

191쪽 2 댓글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91~192쪽

- 191쪽 01 ④ 02 ①
192쪽 03 ① 04 ④

01 ①는 댓글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함을 영상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 매체 자료이다. 따라서 ①의 제작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02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뜻하므로, 인터넷 예절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주제와 자료 간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03 효과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면마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영상 수용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모답풀이 ②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는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대사 등 청각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영상 매체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④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는 영상의 내용과 촬영 기법이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등 촬영 방법이 각 장면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에 적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04 등장인물의 세밀한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는 화면 구성 방식인 클로즈업 솟으로 촬영해야 한다. 롱 솟은 대상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 대상의 동작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93~194쪽

- 01 ④ 02 ⑤ 03 ⑦: 하이 앵글, ⑧: 아이 레벨 앵글, ⑨: 로 앵글 04 ③ 05 ② 06 ③

01 (가)에서 학생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영상의 주제는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나)에서 이를 촬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주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가)에서 학생들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주제)을 학교 학생들(예상 수용자)에게 알려 주기(목적) 위한 영상 매체 자료를 3분 내외(길이)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다.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서술형** '하이 앵글(⑦)'은 대상의 왜소한, 무기력, 소외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아이 레벨 앵글(⑧)'은 가장 일반적인 각도로 안정적인 느낌을 줄 때 사용한다. '로 앵글(⑨)'은 대상의 우월성, 권위, 웅장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04 'S# 2'의 촬영 장면에서는 탄소 중립부 선배들의 상체가 중점이 되어야 하므로 미디엄 솟으로 촬영해야 한다.

05 'S# 2'는 '탄소 중립부' 선배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넣어 장면 전환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모답풀이 ① '후배들이 이렇게 나약하다니.'는 선배의 대사이므로 'S# 2'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S# 3'은 '행복 선배'가 탄소 중립을 위한 방법을 알려 주는 장면이므로 이와 관련한 대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 ⑤ 'S# 11'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게 된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밝고 경쾌한 배경 음악이 적절하다. 또한 이미 탄소 중립 방법을 배웠으므로 '감사합니다. 선배님.'과 같은 감사 인사가 대사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중요한 장면이라면 삭제해서는 안 된다. 장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95~197쪽

-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③ 나를 이 제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오? 07 ⑤ 08 ③ 09 복합양식성 10 ① 11 ④ 12 ⑤

01 (가)의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2 이 작품은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닌다. 이 작품의 각 행은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과 같이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민요 「아리랑」을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와 같이 3음보로 끊어 낭송하는 것과 같다.

03 반어는 실제 상황이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으로, (가)의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역설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실을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다. (나)의 화자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뒤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아름다운 상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⑤은 '눈'을 의인화하여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마치 사람처럼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⑦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당신'임을 알 수 있다.

② ⑧의 앞 행에서 화자는 '당신'이 자신을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⑨과 같이 말할 것이라 하고 있다.

④ ⑩에서는 의성어인 '싸그락'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⑪에서는 마침내 피어난 눈꽃(첫사랑)을 '황홀'에 비유하여 화자의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5 (나)에 제시된 양반 매매 문서에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지나치게 체면과 격식에만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얹매인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낸다.

06 **서술형** (라)에서 ‘부자’는 고쳐 쓴 양반 매매 문서의 내용을 듣고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도둑놈’은 양반을 가리키는 말로 온갖 특권을 누리고 횡포를 일삼는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07 ‘젠체’는 잘난 채를 의미하며, 양반 신분을 팔아 신분이 낮아지기 전에 하던 모습이다. 따라서 ④은 평민이 아닌 양반이 보일 만한 행동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② 평민의 차림새에 해당한다.

③, ④ 평민이 된 ‘양반’은 ‘군수’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소인’으로 칭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인다.

08 ‘촬영하기’ 단계에서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대상의 크기와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장면에 적합한 다양한 촬영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09 **서술형**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결합된 영상 매체 자료가 지니는 복합양식성으로 인해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하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하는 각도로, 대상의 왜소함, 무기력, 소외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오답풀이 ②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각도이다.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하는 것은 ‘하이 앵글’이다.

③ ‘미디엄 솟’은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화면 구성 방식으로, 인물의 경우에는 동작이나 표정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한다. 한편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 대상의 동작 등을 전달하는 촬영 기법은 ‘롱 솟’이다.

④ ‘아이 레벨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정면으로 촬영하는 각도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우월성, 권위, 웅장함 등을 표현하는 것은 ‘로 앵글’이다.

⑤ ‘롱 솟’은 대상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대상 전체를 화면에 기득히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은 ‘풀 솟’이다.

11 ‘S# 3’은 옆자리의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하이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S# 1’은 두 학생과 컴퓨터 모니터가 나오도록 ‘미디엄 솟’과 ‘아이 레벨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③ ‘S# 2’는 인물의 상체가 중점이 되는 ‘미디엄 솟’과 인물의 당당한 모습이 느껴지는 ‘로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S# 11’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두 인물의 모습이 보이도록 ‘미디엄 솟’과 ‘로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에는 계획한 주제와 제작 목적으로 벗어난 장면을 삭제하고, 필요한 장면만 선택하여 계획한 분량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1 세상을 향한 시선과 목소리



보는 이와 말하는 이

간단 복습 문제

03쪽

- 쪽지 시험 01 화자 02 사람 03 1인칭 04 역순행적
 05 ○ 06 × 07 ○ 08 ② 09 ⑤ 10 ④, ⑦
 어휘 시험 01 먹칠 02 너절한 03 추상화하고 04 ④
 05 ⑦ 06 ⑤ 07 ② 08 천부적 09 애호가 10 조바
 심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4~06쪽

- 01 ③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사생 대회에
 서 장원을 하고 싶어서 07 ① 08 ④ 09 ① 10 ③

01 공감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⑤)'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무'가 바라는 꿈인 '배'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구이다.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아궁이 속 장작'은 일반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화자는 이를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모답 풀이 ②, ③ '아궁이 속 장작'에 대한 나무의 입장과 일반적인 인식일 뿐 화자의 인식이 아니다.

④ '나무'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고 난 뒤'를 통해 '나무'의 이타적 모습을 알 수 있다.

04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는 '나무'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의미한다. 꿈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나무'가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모답 풀이 ① '의자'와 '계단'은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의 꿈을 의미한다.
 ② '한 줌 재'는 대상이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드러낸다.
 ④ '바람 소리'는 현재 대상과 함께하는 존재로 나무가 현재의 삶을 충실히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작품 속 주인공인 '0'의 '나'와 '1'의 '나'가 교차하면서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06 **서술형** (다)의 '나'는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하여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타고자 한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던 '나'는 다음 군 사생 대회까지 재료 걱정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07 ⑦은 '1'의 서술자로 부잣집의 고명딸이고, ①은 '0'의 서술자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⑦은 글짓기에는 재능이 없어 백일장 대표로는 나가지 못하고, 대신 사생 대회 대표로 나가게 된다.

08 '나'는 장원 상을 받은 그림을 보고 난 후, 그것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밝히지 않는다.

09 (나)의 '나'는 강당에 전시된 수상 작품들을 보러 갔다가 장원으로 뽑힌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해하고 있다.

10 (다)의 '나'는 장원 상을 빼앗긴 아이를 생각하면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07쪽

- 1단계 01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
 2단계 02 '하지만, 지금은' / '지금'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화자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3 운율을 형성한다. 의미를 강조한다.

- 3단계 04 일반적으로는 '아궁이 속 장작'과 '한 줌 재'를 꿈을 이루지 못한 나무의 상태로 인식하지만, 화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05 시인은 '내 잎사귀'를 사용하여 청자를 어린 나무에서 독자로 재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이 나무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1단계

- 01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로 연쇄적으로 연상하고 있다.

2단계

- 02 19행에서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인 '하지만'에 의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또한 말하는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지금은'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이 아니라, '나무'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 03 '되고 싶니', '–할지도 몰라', '–는 거야', '–구나' 등과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단계

- 04 일반적 인식으로는 '아궁이 속 장작'과 '한 줌 재'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즉 꿈이 좌절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화자는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 목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인식과 화자의 인식을 대비하여 적절하게 쓴 경우 [25점] ✓ 일반적 인식만 쓴 경우 [15점] ✓ 화자의 인식만 쓴 경우 [15점]

- 05 '내 잎사귀' 이전까지 청자는 나이 어린 '나무'이지만, '내 잎사귀'를 사용함으로써 청자가 이 시를 감상하는 독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청자를 재설정함으로써 시인은 독자들이 '나무'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수용하게 하고 독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평가 목표	시어에 담긴 의미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의 변화와 시인의 의도를 모두 쓴 경우 [20점] ✓ 청자의 변화만 쓴 경우 [10점] ✓ 시인의 의도만 쓴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 문제

08쪽

- 1단계 06 (가)–(나)–(다)
 2단계 07 주 선생님 앞에서 울었던 일이 창피했기 때문에
 3단계 08 장원 상이 뒤바뀐 후 (나)의 '나'는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다)의 '나'는 평범하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1단계

- 06 (가)는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과거의 일이고, (나)는 그 이후로 화가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늘 의심하여 살게 된 '0'의 '나'의 이야기이다. (다)는 '1'의 '나'가 어른이 되어 '0'의 '나'를 마주친 현재이다.

2단계

- 07 (가)의 '나'는 주 선생님한테 장원이라는 말을 듣고 주 선생님에게 안겨 평평 울었던 일이 생각나 부끄러워 주 선생님을 찾아가지 못한다.

3단계

- 08 (나)의 '나'는 장원 상이 뒤바뀌고 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지 않은 그 사건 이후로 늘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을 쏟아부으며 열심히 그림을 그려온다. (다)의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 애호가가 되어 유명한 화가가 된 '0'의 '나', 즉 '백선규'를 알아보지만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다며 아는 체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을 가고 있다.

평가 목표	주요 사건이 등장인물에게 미친 영향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나'와 (다)의 '나'에 미친 영향을 ⑦과 ⑧을 근거로 하여 둘 다 적절하게 쓴 경우 [25점] ✓ (나)의 '나'와 (다)의 '나'에 미친 영향을 썼으나 ⑦과 ⑧을 근거로 들지 않은 경우 [20점] ✓ (나)의 '나'와 (다)의 '나'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만을 쓴 경우 [15점]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간단 복습문제

10쪽

- 쪽지시험 01 경청 02 공감 03 관심 04 ④ 05 ①
 06 ⑤ 07 ○ 08 × 09 × 10 ×
 어휘시험 01 진솔하게 02 뿌듯하다 03 빠듯해서 04 ②
 05 ⑦ 06 ⑧ 07 ⑨ 08 존중 09 요약 10 감정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1쪽

- 01 ③ 02 ③ 03 ① 04 ② 05 옷, 가치관 06 ③

- 01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까지 이해하며 나누는 대화이다. 상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2 '승우'는 '수호'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말을 하고 있는 '수호'를 바라보지 않고 휴대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 03 ①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말은 '미래'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말이므로, 대화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04 어머니는 '민서'의 말을 듣고 '민서'의 말을 요약하여 말해 주면서 '민서'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 05 서술형 '경호'와 '할머니'는 오래된 물건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 '경호'는 오래된 물건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할머니'는 오래된 물건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06 가치관이 다른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상황과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머니의 말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대의 상황과 처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대화로 공감하며 대화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12쪽

1단계 01 경청 02 ① 공감, ② 감정

2단계 03 상대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다. 상대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등 04 상대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며 경청하기, 상대의 말에 적절한 표현으로 맞장구치기, 상대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격려하기 등

3단계 05 '승우'가 말을 하고 있는 '수호'를 바라보지 않고 휴대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다.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수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시선을 '수호'에게 고정하며 말을 들어야 한다. 06 '민서'는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 속상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한 건데, 연습하다가 다쳐서 속상한 거구나."

1단계

01 <보기>는 경청의 개념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02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단계

03 상대가 자신의 말을 경청했을 때 '우진'은 상대에게 믿음이 갔다고 하였고, '윤후'는 더 말하고 싶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온'은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04 공감적 대화 방법에는 상대의 말에 주의 집중하며 경청하기, 상대의 말에 적절한 표현으로 맞장구치기("그렇구나!", "맞아!"), 상대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격려하기("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 봐.") 등이 있다.

3단계

05 '승우'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휴대 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효과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해 바른 자세를 취하고, 시선을 상대에게 고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목표

평가 목표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법 알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해가 생긴 이유를 분석하고, '승우'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와 시선을 쓴 경우 [20점] ✓ 오해가 생긴 이유만 분석한 경우 [10점] ✓ '승우'가 갖출 경청의 자세와 시선만 언급한 경우 [10점]

06 '민서'는 연습하다가 손을 다쳐서 배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 속상해하며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평가 목표

평가 목표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서'의 감정과 입장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공감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민서'의 감정과 입장만 파악한 경우 [10점] ✓ '민서'에게 공감하는 말만 <조건>에 맞게 쓴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3~16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일이 귀찮았고, 실수를 바로 잡은 결과 한 아이가 갖게 될 좌절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10 ⑤ 11 ① 12 "내가 부탁한 사진을 찾아 주었구나. 고마워." 13 ④ 14 ② 15 ③

01 이 시의 19행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지금'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되고 싶니', '–할지도 몰라', '–는 거야', '–구나' 등과 같은 종결 표현을 시행의 끝에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무'를 '나'로 표현하여 친근하게 말을 건넴으로써 나무에 대한 화자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느낄 수 있다.

④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로 연쇄적으로 연상하여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나무'의 꿈과 '나무'의 현재 모습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2 <보기>는 이 시의 화자를 '나무'로 바꾸어 '나무'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다시 쓴 것이다.

오답풀이 ② <보기>의 시는 원래 시와 동일하게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원래 시의 시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살리고 있다.

④, ⑤ 시의 주제와 시적 대상이 소망하는 바가 시의 표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3 '나무'가 되고 싶었던 의자, 계단, 창문틀, 배가 아니라 한 줄재가 될 뿐인 장작이 되었지만, 화자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 자체로 소중하다며 나무를 격려하고 있다.

04 ①, ②, ③, ④는 모두 '나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의미하고, ⑤는 현재 '나무'와 함께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05 이 글은 두 인물이 어린 시절 사생 대회에서 겪은 일을 전개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현재(가)–과거(나)~(마)–현재(비)'의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의 '0'의 '나'와 '1'의 '나'이다.

④ 이 글은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0'의 '나'와 '1'의 '나'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⑤ 이 글은 한 사건을 겪으면서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과 그로 인한 정신적 성장을 담고 있다.

06 이 글은 '0'의 '나'와 '1'의 '나'가 교차하며 같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원작이 뒤바뀐 사건에 대한 전말이 드러남으로써 독자는 장원작이 누구의 그림인지, 잘못을 왜 바로잡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결말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결말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 열린 결말인 경우이다. 이 글은 열린 결말과 거리가 멀다.

③ 두 명의 주인공이 교차된 것일 뿐 인물의 성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서술자가 두 사람이며 가치관과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관된 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경우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서술자를 설정한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07 (마)에서 '나'(0)는 그림을 그린 아이가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가 틀림없다며 장원 작품을 그린 아이의 정체를 확신하고 있다.

모답풀이

- ① 현재 화자가 된 사람은 '1'의 '나'가 아니라 '0'의 '나'이다.
- ② 어른이 된 '1'의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된 '0'의 '나', 즉 '백선규'를 알아보고 있지만 아는 체하지 않고 있으며, '0'의 '나'는 '1'의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 ③ '0'의 '나'에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고, 실제로 '0'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④ (나)에서 '나'(1)는 '0'의 '나'에게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있으며, (다)에서 '나'(0)는 '1'의 '나'를 영원히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8 <보기>는 (나)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의 모든 심리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모답풀이

- ① (나)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보기>에서 '소녀'로 등장하고 있다.
- ②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보기>에는 '소녀'의 생각이나 심리는 드러나지 않고 주로 소녀의 행동이 서술되고 있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등장인물을 관찰한 것만을 서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느낌이 듈다.

09 **서술형** (라)에서 ⑦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장원을 하는 것이 절실했던 '0'의 '나'와 달리 '1'의 '나'는 장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에 귀찮고 스트레스받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10 (가)에서 '승우'는 '수호'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다. (나)에서 '승우'는 자신이 부탁한 일을 해 준 '슬기'의 말을 끊고 문제 풀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11 효과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해 바른 자세를 취하고 시선을 상대에게 고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12 **서술형** '승우'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 준 '슬기'에게 고마운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슬기'가 찾은 사진을 함께 보며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다.

13 '부상당하지 않게 더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은 '민서'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민서'를 비난하고 있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14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하얗게 세탁한 옷을 '경호'가 보고,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하지만 '경호'와 대화를 나눈 후에는 '경호'가 그 마음을 몰라 줘서 속상한 기분이 드셨을 것이다.

15 가치관이 다른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상황과 처지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처지(處地)'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의미하는 '역지사지'가 적절하다.

모답풀이

- ①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 ②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진퇴양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 ④ '타산지석'은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 예리하게 읽고, 배려하며 쓰고



이해하고 비판하며 읽기

간단 복습 문제

18쪽

- 쪽지시험 01 이유 02 설명하는 글 03 연역 논증 04 ⓒ
 05 ⑦ 06 Ⓣ 07 ○ 08 ○ 09 ✕ 10 ✕
- 어휘시험 01 직종 02 이목 03 자의식 04 동원
 05 옹호 06 폐사 07 왜곡 08 Ⓣ 09 Ⓡ 10 ⓒ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9~20쪽

- 01 ① 02 ② 03 ① 04 ⑤ 05 ① 06 ① 07 ③
 08 ⑤

01 (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은 진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어 개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 낯선 지역의 동물은 물론 우리나라 동물이라도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답풀이 ② (마)에서 창경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동물원이지만, 동양에서는 일곱 번째로 세워진 동물원이라고 하였다. 세계로 보면 서른여섯 번째로 세워진 동물원이다.

③ (다)에서 사육사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훈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가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수의사는 동물을 직접 대하며 동물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직종이라고 하였다. 동물을 직접 대하지 않는 직종에는 큐레이터와 식생 관리자가 있으며 (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주 키퍼는 육상 동물을 관리하고, 아쿠아리스트는 해양 생물을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한다.

02 ‘분석’은 복잡한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모답풀이 ① (나)에서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종을 동물을 직접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마)에서 호랑이, 사자, 곰 등 우리나라 동물이지만, 생활 공간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마)에서 창경원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와, 그런 창경원이 결국 없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03 글을 읽은 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글 속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창경원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라)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은 뒤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원 당시 창경원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끈 이유와, 창경원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동물원이 과천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모답풀이 ① (가)에서는 ‘동물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 오르는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동물원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의 첫 문장은 동물원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문장은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동물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동물원에서 직접 동물을 대하는 직종으로 주 키퍼, 아쿠아리스트, 수의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동물원에서 직접 동물을 대하지 않는 직종으로 큐레이터와 식생 관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5 (가)에서 동물원이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서 논쟁의 핵심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06 이 글은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가)는 서론, (나)~(라)는 본론, (마)는 결론에 해당한다. 서론에서는 동물원의 존속에 대한 논제를 제시하고 있고, 본론에서는 동물원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07 (다)에서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동물원이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채,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문 (다)에는 이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나와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전문 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8 (마)에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이다. 귀납 논증은 연역 논증과 반대로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모답풀이 ①, ② ‘인간을 비롯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가 일반적인 원리인 대전제, ‘동물원의 동물 역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이다.’가 소전제에 해당한다.

③ 연역 논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제들이 참인 경우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④ 결론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하여 도출된 논리적 결과로, 소전제 다음 문장에 '따라서'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1쪽

- 1단계** 01 동물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가
2단계 02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두 직종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03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3단계 04 ㉠은 이유, ㉡은 근거, ㉢은 주장이다. ㉠은 동물원이 동물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은 ㉠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1단계

- 01 ①-(가)에서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종은 크게 동물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2단계

- 02 ①-(나)에서는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를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직종이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어떤 면에서 다른지 두 직종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03 ②-(나)에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전제 1인 '인간을 비롯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전제 2인 '동물원의 동물 역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이다'를 통해 동물원의 동물도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이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단계

- 04 글쓴이는 동물원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동물원이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타당하다. 또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 든 코끼리의 사례(㉡)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유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평가 목표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기

- 채점 기준
- ✓ ①~③에 해당하는 논증 요소를 정확하게 쓰고, ④과 ⑤의 타당성을 조건에 맞게 평가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쓴 경우 [30점]
 - ✓ ④과 ⑤의 타당성을 조건에 맞게 평가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쓴 경우 [20점]
 - ✓ ①~③에 해당하는 논증 요소만 정확하게 쓴 경우 [10점]
 - ✓ 내용은 맞게 썼으나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 [각 -5점]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 쓰기

23쪽

- 쪽지 시험** 01 객관적인 02 개요 03 이해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구체적 02 분비된다 03 선별해 04 ㉠
 05 ㉢ 06 ㉣ 07 ㉡ 08 기호 09 갈증 10 섭취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4~25쪽

-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7 ① 08 한편, 있다. 09 ⑤

- 01 설명하는 글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준서'는 아이스크림의 특징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쓰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모답풀이** ① 아이스크림의 특징을 조사해서 글을 쓴다고 하였다.
 ②, ④ 쓴 글을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인 블로그에 올린다고 하였다.

- 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 03 개요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여 구조화한 글의 뼈대이다.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처음-가운데-끝'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 04 <보기>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의 부피가 늘어나고 질감도 부드러워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를 설명할 때 <보기>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05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목적, 독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글을 고쳐 쓸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모답풀이** ① 글을 쓸 때에는 어문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④ 독자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표현들을 사용하였다면 독자의 수준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 ⑤ 설명 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6 (라)에서는 아이스크림의 특징 중 하나인 달콤한 맛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이스크림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모답 풀이 ① (나)의 '아이스크림이란 … 얼린 것을 말한다.'에서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나)에서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형태와 맛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아이스크림과 얼음을 견주어 공통점(비교)과 차이점(대조)을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아이스크림, 즉 당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원인) 기분이 좋아진다(결과)고 설명하고 있다.

07 (가)에서는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갈증을 달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는 상상을 해 보자.'라고 하며 이 글의 중심 소재인 아이스크림에 대한 독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08 **서술형** (다)의 마지막 문장은 아이스크림의 기원에 대한 내용으로, (다)의 중심 내용인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질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09 이 글의 제목 '아이스크림의 두 얼굴'에서 '두 얼굴'은 아이스크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의미한다. 한편 (마)에서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먹을 경우 당을 과하게 섭취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마)의 뒤에는 당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02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를 엔진, 바퀴, 핸들, 브레이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2단계

03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0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이라는 친환경 에너지의 구체적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05 예상 독자는 '서연'의 학교 친구들이므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과학적 원리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야 한다. 또한 누리집이라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시각 자료를 함께 올린다면 학생들이 더욱 쉽게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 목표	예상 독자와 매체 고려하여 설명하는 글 쓰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독자와 매체를 밝히고 고려해야 할 점을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예상 독자와 매체만 쓰거나, 고려해야 할 점만 쓴 경우 [10점]

06 ㉠은 배드민턴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정의의 방법을, ㉡은 배드민턴의 경기 방식을 '선수의 성별', '인원 수'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구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은 배드민턴이 생활 스포츠로서 인기가 많다는 사실과 그 원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인과로 설명할 수 있다.

평가 목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 쓰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적절하게 쓴 경우 [30점] ✓ ㉠, ㉡, ㉢ 중에서 하나의 설명 방법을 쓴 경우 [각 10점]

고득점 서술형 문제

26쪽

1단계 01 내용 생성하기 02 분석

03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므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인 <보기>는 활용할 수 없다.

04 예시, 친환경 에너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05 예상 독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글을 쓸 매체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06 ㉠은 배드민턴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다. ㉡은 배드민턴의 경기 방식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기 위해 '구분'의 방법을 사용한다. ㉢은 배드민턴이 생활 스포츠로서 인기가 많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인과'의 방법을 사용한다.

1단계

01 설명하는 글을 쓸 때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책, 신문 기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7~30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② 10 ⑤ 11 인과 12 ④ 13 ②

01 이 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다.

02 (라)에서는 시대에 따라 동물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과거와 오늘날의 동물원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 모답풀이 ① (가)에서는 독자에게 친숙한 '동물원'을 언급하며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과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는 독자에게 동물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3 '정의'는 어떤 대상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에는 개념이나 용어를 풀이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 모답풀이 ②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나)에서 주 키파와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다.
③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나)에서 주 키파와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④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다)에서 우리나라 동물이지만 생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로 호랑이, 사자, 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⑤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다)에서 창경원이 인기 있었던 이유, 창경궁이 없어지게 된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04 오늘날의 동물원은 동물이 본래 살던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고, 동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 모답풀이 ①, ③ 과거의 동물원은 동물을 가두어 관람객에게 전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② 방문객이 직접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원이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④ 오늘날의 동물원이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동물원의 동물들은 방문객들을 만나고 있다.

05 (나)와 (다)에서는 코끼리와 호랑이, 오랑우탄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동물원이 동물의 본성을 침해하고 동물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마)에서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6 <보기>는 멸종 위기종이 동물원에서 폐사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마)에서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동물원의 존재를 옹호하는 주장을 반박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7 ④은 동물이 멸종하면 생태계와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의 존재를 옹호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이다. 동물원을 존속하면 이러한 멸종 위기종을 보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얼마나 보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않다.

08 ④와 ⑤는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원이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 모답풀이 ①, ②, ⑥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대전제)이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대전제에 구체적 사례를 적용한 소전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이를 삼단 논법이라고 한다.
④ 귀납 논증 중 유추(유비 추리)에 대한 설명이다.

09 설명하는 글 쓰기는 '계획하기(ㄱ)–내용 생성하기(ㄹ)–내용 조직하기(ㄷ)–글 쓰기(ㄴ)–고쳐쓰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0 (가)~(다)에는 아이스크림의 개념과 종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라)에서는 아이스크림에 적지 않은 당이 들어 있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 서술형 (나)에서 재료를 계속 저으면서 얼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질감이 부드럽다는 것과 (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에 포함된 당으로 인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12 ④의 출처가 '세계 보건 기구'라는 것을 앞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보건 기구'는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 모답풀이 ① ⑦에서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나누어 제시하는 방향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② ⑦은 아이스크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나)의 중심 내용인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질감'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③ ⑦에서 도파민과 같은 과학 용어는 평소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파민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⑤ ④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 듯하다'라는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출처를 초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13 '비교'는 두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보기>의 설명할 내용에 귀지와 다른 대상과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비교'는 활용할 수 없다.

- 모답풀이 ① 분석을 활용하여 '귀지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예시를 활용하여 '귀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인과를 활용하여 '귀지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정의를 활용하여 '귀지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우리말과 우리글

간단 복습 문제

32쪽

- 쪽지시험 01 음운 02 소리 나는 위치 03 이중 모음 04 ①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⑥ ⑦ 10 ⑧ ⑨
 어휘시험 01 오해 02 독창적 03 배치 04 ⑤ 05 ⑥ 06 ⑦ 07 ⑧ 08 경쟁력 09 모아쓰기 10 가독성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3~34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①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③

01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공’과 ‘강’이 모음 ‘느’와 ‘ㅏ’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킨다.

- 모답풀이 ① ‘물’과 ‘불’은 자음 ‘ㅁ’과 ‘ㅂ’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② ‘찌’라고 말한 것은 말소리면서, 음운들이 결합하여 한 번에 발음되는 음절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인 소리는 말소리이다.
 ⑤ 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이다.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의해 방해를 받는 소리는 자음이다.

02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콧소리, 흐름소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눌 수 있다.

03 ‘ㄹ’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잇몸소리이다. ‘ㅃ’은 입술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 ‘ㅋ’은 센입천장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0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음은 흐름소리로, ‘ㄹ’이 해당한다. 따라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와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에 ‘ㄹ’을 포함하고 있는 ‘달력’이 적절하다.

05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ㄱ, ㅋ, ㄲ, ㆁ’이고, 이 중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ㄱ, ㅋ, ㅋ’이다. 한편 성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공기를 약하게 내보내는 소리는 예사소리이므로, <보기>의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자음은 ‘ㄱ’이다.

06 발음할 때 입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모음은 저모음이다. 고모음은 입이 가장 적게 벌어진다.

모답풀이 ① ‘귀’는 단모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에서 시작해 ‘ㅣ’로 끝나도록 발음하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의 10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ㅕ, ㅘ, ㅕ, ㅕ, ㅕ’의 11개이다.

④ 입천장 가운데를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앞쪽에 있는 것을 전설 모음, 입안의 뒤쪽에 있는 것을 후설 모음이라고 한다.

⑤ ‘ㅑ’나 ‘ㅕ’를 발음할 때 ‘ㅣ’나 ‘ㅗ’처럼 아주 짧게 발음하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한다.

07 ‘ㅏ, ㅓ, ㅗ, ㅜ, ㅡ, ㅣ’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단모음이고, ‘ㅑ, ㅕ, ㅛ, ㅕ, ㅘ, ㅕ’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이중 모음이다.

08 입술을 둑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모음인 ‘원순 모음’에는 ‘느, ㅋ, ㅌ, ㅍ, ㅎ’이 있고, 입술을 둑글게 오므리지 않고 소리 내는 ‘평순 모음’에는 ‘ㅏ, ㅓ, ㅗ, ㅜ, ㅡ, ㅣ’가 있다.

09 훈민정음은 이체자 3개를 포함하여 자음의 기본자 5개, 가획자 9개, 모음의 기본자 3개, 초출자 4개, 재출자 4개를 합하여 총 스물여덟 자이다.

10 ‘△(반치음)’은 기본 글자인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다른 가획자와 달리 획을 더한 것에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이체자이다.

11 <보기>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 글자 ‘ㄴ’과 ‘ㅅ’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든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가획자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진다는 뜻을 나타낸다.

12 훈민정음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들고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획자와 이체자를 만들었다. 이 외의 자음자는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ㄱ, ㄲ, ㅋ, ㅌ, ㅍ, ㅎ’은 같은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 모답풀이 ① 천지인을 본뜬 글자는 ‘ㄱ, ㄴ, ㅓ, ㅣ’이다.
 ② 기본자와 초출자를 합친 글자는 ‘ㄱ, ㅓ’ 등이 있다.
 ④ 기본자를 위아래로 잇대어 쓴 글자는 ‘ㆁ, ㆁ, ㆁ’ 등이 있다.
 ⑤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한 글자는 ‘ㅋ, ㅌ, ㅍ, ㅎ’ 등이 있다.

13 ‘ㅋ’는 초출자 ‘ㄱ’과 기본자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훈민정음의 모음자에서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외에 나머지 모음자들은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를 서로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14 ⑦은 자음과 모음이 풀어써져 있어서 음절이 한눈에 파악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⑧은 음절 단위로 모아써져 있어서 글자가 한눈에 들어와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 모답풀이 ① ⑦이 ⑧보다 종이나 화면에서 공간을 덜 차지한다.
 ② ⑦과 ⑧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음절이나 단어의 경계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으므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④ ⑦과 ⑧은 둘 다 가로쓰기에 어울리는 방식이다.
 ⑤ ⑦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 썼고, ⑧은 모아 썼다.

1단계 01 ① 뜻, ② 자음 02 ॥

2단계 03 'ㄱ', 'ㄴ', 'ㅏ', '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04 가획자는 'ㄷ, ㅌ, ㅈ, ㅊ, ㅎ'이다. 가획자는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다.

3단계 05 ①은 예사소리로 'ㄱ, ㄷ, ㅂ, ㅅ, ㅈ'이 있다. ②은 된소리로 'ㅋ, ㅍ, ㅃ, ㅆ, ㅉ'이 있다. ③은 거센소리로 'ㅋ, ㅌ, ㅍ, ㅊ'이 있다. 06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입몸에 붙는 모양을, 'ㅁ'은 입의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처럼 자음자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1단계

01 '물'과 '불'이 'ㅁ'과 'ㅂ'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음운은 말소리 중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우리말 음운에는 크게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02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여 소리를 내는 평순 모음은 'ㅣ, ㅔ, ㅐ, ㅡ, ㅓ, ㅏ'이다.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에 있는 중모음은 'ㅔ, ㅚ, ㅓ, ㅏ, ㅗ'이다. 또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은 'ㅣ, ㅟ, ㅔ, ㅚ, ㅐ, ㅓ'이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음은 'ㅔ'이다.

2단계

03 <보기>의 문장에는 'ㄴ, ㅡ, ㅏ, ㅜ'의 네 가지 모음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발음할 때 입천장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04 가획자는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 <보기>의 'ㄷ, ㅌ'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한 글자이고, 'ㅈ, ㅊ'은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한 글자이다. 또한 'ㅎ, ㅎ'은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한 글자이다.

3단계

05 ①~⑤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누면 ①은 예사소리, ②은 된소리, ③은 거센소리이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순으로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평가 목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 분류하기

채점 기준	✓ ①~⑤의 유형을 올바르게 쓰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①~⑤의 유형만 쓴 경우 [10점]
	✓ ①~⑤의 유형에 해당하는 예만 쓴 경우 [10점]

06 <보기>의 'ㄱ, ㄴ, ㅁ, ㅅ, ㅇ'은 모두 자음자의 기본자들이다. 이 자음자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평가 목표	자음자의 제자 원리 파악하기
	✓ 자음자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글자별로 설명하고, 창제 원리로 상형의 원리를 밝혀 쓴 경우 [20점]
채점 기준	✓ 자음자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글자별로 밝혀 쓴 경우 각 3점씩 배점 [총 15점]
	✓ 자음자 기본자의 창제 원리로 상형의 원리를 밝혀 쓴 경우 [5점]

12 두근두근 발표

간단 복습문제

37쪽

쪽지시험	01 도입부	02 말하기	03 배경지식	04 ②
05 ⑦	06 ⑧	07 ⑨	08 ○	09 × 10 ○
어휘시험	01 조정	02 착용해야	03 완화하기	04 ⑤
05 ⑦	06 ⑧	07 ⑨	08 선정	09 재구성 10 체계적

→ 예상 점증 소단원 평가

38~39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④

01 (다)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일한 사례를 다루고 있으므로, '윤아'네 모둠이 발표하려고 하는 '착용 로봇 공학자'라는 주제와 거리가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다)는 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윤아'네 모둠은 '착용 로봇 공학자'를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므로, 착용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착용 로봇 공학자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등을 다룬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03 발표를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담아야 한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담았는가?'는 자료를 선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나)에서 착용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로봇의 움직임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답풀이 ① (라)에서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착용 로봇 공학자의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노인들의 균열 강화를 도와주는 착용 로봇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③ (가)에서 착용 로봇을 소재로 한 영화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일 뿐 착용 로봇이 영화 산업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다)에서 착용 로봇이 실제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하며, 산업 재해를 예방하려는 사람들이 보조 기기용 착용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을 뿐 법적인 책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05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발표 내용과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용을 수시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풀이 ① (가)에서 '착용 로봇'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하거나, (나)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착용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 주제와 관련한 영화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④ (가)에서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라고 질문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이처럼', (다)에서 '다음으로'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여 발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06 (라)에서 발표자는 그래프를 제시하여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청중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도표로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풀이 ①, ③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를 어려워하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 내용 및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②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어려운 단어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40쪽

01 1단계 ① 전개부 ② 말하기 불안

02 2단계 ③ 발표 주제와 관련한 사진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03 04 3단계 도입부에서 발표 순서를 미리 설명한다.

05 06 3단계 ⑤ 그래프는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를 활용하여 착용 로봇 공학자의 직업 전망이 밝을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06 06 누나가 아구 용어를 모르는 동생을 고려하지 않고 아구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나가 동생의 눈높이에 맞게 아구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1단계

01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도입부-전개부-정리부'로 나누어 각 단계에 들어갈 내용과 전략을 구성하면 발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발표 주제와 목적, 절차, 의의 등을 안내한다. 전개부에서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 대상의 개념과 종류 등을 설명한다. 정리부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인상적인 표현이나 인용구를 활용하여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다.

02 <보기>의 학생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말하기 불안'이라고 한다.

2단계

03 도입부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 등과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04 발표를 할 때 발표의 차례를 도입부에서 미리 설명하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 발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보기>는 발표의 차례를 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발표의 도입부에서 발표 순서를 미리 안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3단계

05 그래프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 '착용 로봇' 시장 규모가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임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착용 로봇 산업의 전망이 좋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착용 로봇 공학자의 직업 전망이 밝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1>의 그래프를 제시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매체 자료의 활용 방안 계획하기
채점 기준	✓ 그래프의 핵심 내용과 활용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그래프의 핵심 내용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그래프의 활용 방안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06 누나가 동생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누나가 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화할 경우 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평가 목표	듣기·말하기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조정하기
채점 기준	✓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와 개선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대화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⑤ 07 ①
 08 코를 막고 발음했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가? 09 ③ 10 ⑤
 11 ⑤ 12 ⑤ 13 ③ 14 ② 15 ⑤ 16 ②

-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 02 ‘마음’과 ‘무음’은 모음 ‘ㅏ’와 ‘ㅜ’의 소리 차이 때문에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 03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이중 모음에는 ‘ㅑ, ㅕ, ㅕ, ㅕ, ㅕ, ㅕ, ㅕ, ㅕ, ㅕ, ㅕ’가 있다. ③ ‘병원’에는 ‘ㅕ’, ‘ㅕ’가 사용되었다.
- 04 <보기>의 단어들에 쓰인 모음은 ‘ㅣ’, ‘ㅜ’, ‘ㅟ’, ‘ㅡ’이다. ‘ㅣ’는 고모음, 평순 모음, 전설 모음이고, ‘ㅜ’는 고모음,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ㅟ’는 고모음, 원순 모음, 전설 모음이며, ‘ㅡ’는 고모음,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이 모음들의 공통점은 고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 05 ‘ㅡ’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ㅏ’는 저모음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 06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은 각각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음은 ‘ㅏ’이다.
- 07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은 각각 여린입천장소리, 된소리, 파열음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음은 ‘ㅋ’이다.
- 08 **서술형** ⑦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콧소리’이고, ⑦은 혀끝에 잇몸을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흐름소리’이다. ‘콧소리’는 발음할 때 공기가 코로 나가기 때문에 코를 막으면 막기 전의 소리와 차이가 생긴다. 반면에 ‘흐름소리’는 ‘콧소리’와 달리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코를 막아도 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 09 밑줄 친 부분에는 세종 대왕이 백성들이 말하고자 것을 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나타난 창제 정신은 애민(백성을 사랑하는 것) 정신이다.
- 오답풀이** ①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에서 비판 정신은 찾을 수 없다.
 ②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날마다 편히 쓰게 하고자 한 것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④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서 자주 정신이 드러난다.
 ⑤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 것에서 창조 정신이 드러난다.
- 10 ⑩에 들어갈 글자는 ‘ㅇ’이다. ‘ㅇ’에서 소리가 세어짐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가획자 ‘ㅇ’, ‘ㅎ’이 만들어졌다. ‘ㅇ’은 ‘ㅇ’의 이체자이다.

11 훈민정음 모음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ㆍ’, ‘ㅡ’, ‘ㅣ’를 만들고, 기본자 ‘ㅡ’,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초출자인 ‘ㅏ’, ‘ㅓ’, ‘ㅗ’, ‘ㅜ’를 만들었으며,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재출자인 ‘ㅑ’, ‘ㅓ’, ‘ㅕ’, ‘ㅕ’를 만들었다.

12 ⑦은 현대 국어에서도 된소리로 그대로 쓰이고 있지만, ⑦과 ⑦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⑦은 같은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의 방법으로, ⑦은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다.

③, ④ ‘ㅁ, ㅂ, ㅍ, ㅃ’은 모두 입술소리이다. ‘甁, 甁, 甁, 甁’은 입술소리에 ‘o’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13 (가)의 한글 자판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고, 자음자와 모음자가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어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닌 장점이다.

14 (나)에서 착용 로봇 공학자는 착용 로봇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움직임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신경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착용 로봇은 사람의 행동과 무관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그래프를 제시하여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증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 의료 기기용 착용 로봇은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의 재활 치료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착용 로봇’이 옷처럼 입거나 몸에 장착하여 사람의 동작을 보조해 주는 로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 (다)에서 그래프를 활용하여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 하나의 대상을 그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6 ⑦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 뿐, 청중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⑦에서는 ‘먼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착용 로봇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이어질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⑦은 “아, 단어가 어렵죠?”라는 부분에서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파악하고 이 내용을 쉽게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⑦에서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자료를 그래프로 정리하여 보여 줌으로써 청중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⑤ ⑦에서는 지금까지 착용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 착용 로봇 공학자의 직업 전망,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다며 전개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발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4 의미 있는 경험, 나만의 표현



개성적으로 발상하고 표현하기

간단 복습 문제

45쪽

- 쪽지 시험 01 반여적 02 시간 03 풍자 04 × 05 ○
 06 ○ 07 ⑦ 08 ⑨ 09 ⑩ 10 ⑩
 어휘 시험 01 나무랐다 02 퍼부어서 03 쫓아 04 ⑨
 05 ⑨ 06 ⑨ 07 ⑦ 08 전체하다 09 욕되다 10 부조리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6~47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② 06 ④
 07 ③ 08 ②

01 (가)와 (나)는 현대 시이자 서정시로 시 갈래에 속한다. 시는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의미가 담긴 시어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이다.

02 (가)의 화자는 '당신'이 화자를 찾아올 먼 훗날을 가정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가)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모답풀이 ① (가)의 화자에게 시적 대상인 '당신'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나)의 화자에게 시적 대상인 '눈'이나 '황홀', '아름다운 상처'는 사랑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시적 대상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을 슬퍼하며 그리워하고 있지만 현실을 비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의 화자는 '아름다운 상처'를 보면서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의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있다.

③, ④ (가)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며,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인내와 헌신으로 도달한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03 (나)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면추지 않았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가)는 낭독할 때 세 번씩 끊어 읽게 되므로 3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각 연을 '잊었노라'로 마무리하여 '당신'을 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의 '아름다운 상처'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역설을 사용하여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의 성숙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싸그락'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난분분'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와 눈이 훌날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4 ⑬에는 현재도 과거에도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본심이 드러난다. 따라서 '당신'을 잊었다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5 (나)에서 '부자'가 곡식을 대신 갚아 줄 테니 양반 자리를 팔라고 하자, '양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부자'의 말을 듣고 있다.

모답풀이 ① (가)에서 '아내'는 '양반'의 글 읽기가 가정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③ '부자'는 '양반'의 소식을 듣고 식구들을 불러 모아 양반 자리를 사면 어떻겠느냐고 논의하고 있다.

④ '군수'는 '양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관찰사'의 명령에도 차마 '양반'을 가두지 못하고 있다.

⑤ '관찰사'는 '양반 나부랭이'라고 칭하며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축낸 양반을 잡아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 있다.

06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 때문에 하찮은 대접을 받고 말도 타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식구들에게 양반 신분을 사 오자고 한다.

07 '양반'이 밤이고 낮이고 올기만 했던 이유는, 관청에서 빌려다 먹은 곡식 천 석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08 '벼력'은 '성이 나서 갑자기 기를 쓰거나 소리를 냅다 지르는 모양'을 이른다. '갑자기 목청을 높여 자꾸 세게 지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단어는 '꽥꽥'이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48쪽

- 1단계 01 찾으시면, 나무라면 02 황홀

- 2단계 03 '아름다운'의 의미와 '상처'의 의미가 모순 관계이기 때문이다.

- 3단계 04 '잊었노라'의 '말한 것'은 '잊었다.'이고, '의미하는 것'은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단계

01 (가)의 '찾으시면'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당신'이 찾아올 미래를 가정하고 있고, '나무라면'은 화자를 찾아온 '당신'이 화자를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02 3연의 '황홀'은 눈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주는 헌신 끝에 얻은 것으로 나뭇가지에 핀 눈꽃을 의미한다.

2단계

03 ‘역설’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식이다. 시인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답다’와 ‘상처’라는 표현을 결합하여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단계

04 (가)의 화자는 ‘잊었노라’라고 말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와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표현보다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반어의 개념과 효과 이해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잊었노라’의 겉으로 표현된 의미와 실제 속마음의 내용을 밝혀 쓰고,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적절하게 쓴 경우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잊었노라’의 겉으로 표현된 의미와 실제 속마음의 내용을 밝혀 쓴 경우 [15점] ✓ 반어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3단계

07 (다)에서는 양반의 의무와 규범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풍자하고 있다. (라)에서는 양반의 특권을 제시하여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평가 목표	대상에 대한 풍자의 내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와 (라)의 중심 내용과 풍자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쓴 경우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와 (라)에서 풍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와 (라)의 중심 내용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 문제

49쪽

- 1단계** 05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2단계 06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팔았다. / 부유한 평민이 등장했다. /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존재했다. 등
3단계 07 (다)의 중심 내용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다. 이를 통해 허례허식에 얹매여 생활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라)의 중심 내용은 양반으로서 누리게 될 특권이다.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1단계

05 (가)에서 ‘아내’는 ‘양반’이 엽전 하나만큼의 값어치도 안 된다는 뜻으로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이라고 ‘양반’을 칭하고 있다. 이는 ‘양반’의 무능력하고 현실 대처 능력이 없는 모습을 한심하게 여기는 ‘아내’의 생각이 반영된 풍자적 표현이다.

2단계

06 (나)에서 ‘군수’가 양반 매매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팔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으로 보아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존재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간단+ 복습 문제**

51쪽

- 쪽지 시험 01 탄소 02 각도 03 감독 04 자막 05 ◎
 06 ◎ 07 ⑦ 08 ◎ 09 ⑦ 10 ◎
 어휘 시험 01 ◎ 02 ⑦ 03 ◎ 04 ◎ 05 주의
 06 결합되어 07 현황 08 위반 09 조치 10 게시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2~53쪽

-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⑤ 06 미디엄 솟,
 로 앵글 07 ④

01 학생들은 선생님의 추천이 아니라 탄소 중립의 개념과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정하였다.

모답 풀이 ① (가)에서 영상제에서 영상 매체 자료의 분량을 3분 내외로 정해 주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제작할 영상 매체 자료를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결합해서 복합양식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에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한 영상 매체 자료를 출품하려고 하고 있다.

④ (나)에서 학생들은 스토리보드의 개념과 스토리보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전에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2 영상 매체 자료를 본 예상 수용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이 탄소 중립을 직접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상 매체 자료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 즉 정보 전달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③ 촬영할 사람과 연기할 사람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④ 앞서 '남학생 1이 말한 주제와 함께 제작 목적과 예상 수용자도 영상 매체의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⑤ 스토리보드는 이야기에 따른 연기자의 행동, 대사와 자막,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배경 음악과 효과음 등 촬영에 필요한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대본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03 '롱 솟'은 대상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대상의 전체를 화면에 가득히 촬영하는 방법은 '풀 솟'이다.

모답풀이 ① '클로즈업 솟'은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인물의 경우, 세밀한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② '하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대상의 왜소함, 무기력, 소외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④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대상의 우월성, 권위, 웅장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⑤ '미디엄 솟'은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인물의 경우, 동작이나 표정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한다.

04 탄소 중립 현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장면이므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현황을 보는 모습이 나오도록 미디엄 솟과 아이레벨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촬영 전'에 고려할 사항에는 '촬영에 필요한 의상이나 소품 등을 모두 준비하였는가?', '촬영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각 역할의 담당자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등이 있다. '촬영 중'에 고려할 사항에는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카메라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가?', '화면이 선명하게 촬영되고, 소리가 깨끗하게 녹음되고 있는가?', '계획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촬영해야 하는 장면은 없는가?' 등이 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의 분량이나 장면의 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자막이나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하는 것은 촬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06 **서술형** 두 학생의 상반신이 보이도록 찍어야 하기 때문에 미디엄 솟을 사용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촬영 방법을 써야 하므로 앵글을 사용해야 한다.

07 ⑤는 사람이 아니라 빨대를 바꾸는 모습을 확대해야 탄소 중립 방법이 부각될 수 있다.

모답풀이 ① ⑤에서는 '우리 학교 탄소 중립을 지켜라!'라는 제목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주제인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② ⑤에서는 건전지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탄소 중립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⑤에서는 탄소 중립 방법인 '녹색 인쇄'를 다른 글씨보다 크게 만들

어서 탄소 중립 방법을 부각하고 있다.

⑤ ⑤에서는 전자 기기의 화면을 확대하여 보여 줌으로써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 잘 보이게 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54쪽

1단계 01 복합양식성 02 스토리보드

2단계 03 제목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자막을 넣는다. / 배경 음악(효과음)을 추가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 04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등

3단계 05 ①과 ⑤은 모두 두 학생의 상반신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미디엄 솟으로 촬영한다. 하지만 ⑤은 앉아 있는 두 학생의 모습이 정면에서 보이도록 아이 레벨 앵글로 촬영하고, ⑤은 두 학생이 위를 올려다보도록 앵글로 촬영한다.

1단계

01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02 영상을 실제로 촬영하기 전에 각 장면의 내용과 촬영 방법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 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한다.

2단계

03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막을 넣거나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의 음향을 사용하면 예상 수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04 완성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는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윤리적으로 제작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3단계

05 ①과 ⑤은 모두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미디엄 솟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⑤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구성, ⑤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성이기 때문에 각각 아이 레벨 앵글과 로 앵글로 촬영해야 한다.

평가 목표	장면에 맞는 촬영 방법 활용하기
채점 기준	<p>✓ ①과 ⑤에 사용된 촬영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쓰고, 그 이유를 장면 그림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쓴 경우 [30점]</p> <p>✓ ①과 ⑤에 사용된 촬영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썼으나, 그 이유를 장면 그림과 관련지어 쓰지 않은 경우 [20점]</p> <p>✓ ①과 ⑤에 사용된 촬영 방법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밝혀 쓴 경우 [10점]</p>

-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⑤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장면 1]에는 하이 앵글이, [장면 2]에는 미디엄 솟이 사용되었다.

- 01 (나)의 화자는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그 결실, 첫사랑이 끝난 후 남은 아픔을 눈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첫사랑을 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가)의 1연은 '찾으시면'이라는 시어를 통해 '당신'이 '먼 훗날' 화자를 찾아올 것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연과 3연의 '나무라면'을 통해서는 화자를 찾아온 '당신'이 화자를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겨울에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는 모습에서 계절이 지나 '봄'이 오고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봄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드러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잊었노라'에서 '-노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또한 '잊었노라'는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임을 잊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④은 눈꽃이 피었다가 녹은 자리로 첫사랑의 아픈 시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모답풀이** ① '많은 도전'은 눈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눈의 모습을 나타내며,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싸그락 싸그락'은 의성어로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눈'의 모양 및 색의 유사성에서 착안하여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희생과 헌신적인 마음을 '햇솜'에 비유하고 있다.
 ④ '마침내'는 '드디어 마지막에는'이라는 의미로 드디어 역경을 딛고 피워 낸 눈꽃의 의미를 강조한다.

- 05 이 글은 고전 소설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고전 소설의 서술자는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모두 깨뚫어 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다.

- 모답풀이** ①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방식을 말한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한 명으로,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간적 배경은 '정선 고을'이라고 (가)에 제시되어 있다.
 ④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은 '양반'과 그의 '아내', '군수', '부자' 등으로 이들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6 '양반'이 책을 읽은 것은 글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으로, 이는 (가)의 내용과 (나)의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모답풀이** ② (가)에서 정선 고을에 새로 오는 군수는 누구라도 '양반'네 집에 인사를 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관찰사'가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축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양반'은 곡식을 깊을 '뾰족한 수'가 없어 밤이고 낮이고 올기만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양반'의 무능력함이 드러난다.

- ⑤ (가)에서 '양반'의 집이 몹시 가난했으며, 여러 해에 걸쳐 꾸어다 먹은 곡식이 천 석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07 ④을 통해 '군수'가 고을의 관리로서 양반 매매 사실을 문서로 남겨 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부자'가 양반의 실체를 알게 하여 결국에는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8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촬영하는 방식은 미디엄 솟이다. 클로즈업 솟은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는 촬영 방식으로, 인물의 경우 세밀한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 09 학생들은 학교 영상제에 제출하기 위한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생의 말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예상 수용자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모답풀이** ①, ②, ③ 학생들은 교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이를 본 학생들이 탄소 중립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다.

- ④ 영상제에서 영상 매체 자료의 분량을 3분 내외로 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10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의 분량이나 장면의 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자막이나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하여 편집할 수 있다.

- 11 **서술형** [장면 1]은 대상을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하였으므로 '하이 앵글'이 사용되었다. [장면 2]는 두 인물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촬영하였으므로 '미디엄 솟'이 사용되었다.

실전에 강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59~64쪽

-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① 06 ③
 07 ②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④ 16 ④ 17 ④ 18 ②
 19 ④ 20 ② 21 ④ 22 ① 23 ③ 24 ③

25 <보기 1>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던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보기 2>에서는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01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쇄적 연상 기법에 의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모답풀이 ① 연쇄적 연상 기법을 활용하여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의자→책상→계단→창문틀→배'와 같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되고 싶어', '–할지도 몰라', '–는 거야', '–구나' 등과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춤추는 모습에 비유하여 대상이 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별빛이 들고 나는',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 '밟으면 빠걱 소리가 나는', '바람 소리를 들어 보렴'과 같은 청각적 이미지,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고',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무'의 꿈과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02 이 시의 '나무'나 <보기>의 '나'는 모두 자라서 의자, 책상, 계단, 배 등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있는 존재일 뿐, 아직 꿈을 이룬 존재는 아니다.

모답풀이 ① 이 시와 <보기> 모두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②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말투에서 '나무'와의 친밀감이 느껴지며 자연과 교감하는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③ <보기>의 화자는 1연 3행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에서 '나무'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시적 대상이지만, <보기>에서 '나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나'로 시적 화자이다.

- 03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아 '한 줌 재'가 되더라도, 그 재는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화자는 이처럼 '나무'의 꿈이 좌절되더라도 '나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 주고 있다.

- 04 '나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이다. ⑤ '바다'는 '나무'가 '배'가 돼서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 05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인 '0'의 '나'와 '1'의 '나'의 시점이 교차되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0'의 '나'와 '1'의 '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만을 전달하고 있다.

모답풀이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③ 이 소설에서 작품 외부의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작품 내부의 서술자 두 명이 교차하면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④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 06 '1'의 '나'는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본인의 실수로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상을 바로잡는 일이 귀찮았거나 와 굳이 상을 받지 않아도 자신은 행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괜히 상을 빼앗긴 아이의 좌절감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알기에 애초에 상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모답풀이 ① 장원 작품은 '0'의 '나'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1'의 '나'가 그린 그림이다.

②, ④ '0'의 '나'는 그림을 보려 강당에 갔다가 자신의 그림이 아닌 것을 알고 가슴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이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 '0'의 '나'는 '1'의 '나'가 그림을 보려 오자 그림의 진짜 주인임을 알고 눈을 감는다.

⑤ (가)로 보아 사생 대회 때 '1'의 '나'가 '0'의 '나' 앞에서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0'의 '나'가 '1'의 '나' 뒤에서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 07 '1'의 '나'는 사생 대회에서 자신의 번호가 아닌 '124'번을 그림 뒤에 적는다. '124'번은 '0'의 서술자인 '나'의 번호였는데, 이로 인해 '0'의 '나'가 장원 상을 타게 된다.

- 08 '0'의 '나'는 그림의 풍경이 자신이 그린 것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허말라야시다 가지 끝 앞부분이 회색 크레파스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에게는 회색 크레파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림 뒤에 쓰인 번호가 자신의 번호인 '124'번은 맞지만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모답풀이 ① (라)에서 '0'의 '나'는 그림의 풍경은 자신이 그린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② 그림의 번호는 '124'로 '0'의 '나'의 번호가 맞다. 그렇기에 '0'의 '나'가 장원을 타게 된 것이다. 다만,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 자신의 번호 대신 '0'의 '나'의 번호인 '124'를 잘못 적었음을 알 수 있다.

③ '0'의 '나'는 장원 상을 수상한 그림에 회색 크레파스가 칠해져 있는 것과 그림에 적혀 있는 번호의 글씨가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④ '0'의 '나'는 그림을 직접 보고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장원이 당연히 자신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장원을 받을 실력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

- 09 ④~⑦는 '0'의 '나'를 가리킨다. ⑧은 '1'의 '나'로 사생 대회 때 장원을 받은 작품의 진짜 주인이다.

- 10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한다. 경청하며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개인 정보는 함부로 묻거나 말해 주어서도 안 된다.

- 11 '슬기'는 '승우'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말을 이어 가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졌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12 상대의 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 13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경호의 웃을 삶았고 이를 경호가 기쁘게 입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경호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 주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할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있다.
- 14 (가)에서는 동물원의 개념을 밝히고 있고, (나)와 (다)에서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5 (다)에는 큐레이터, 식생 관리자 등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다.
- 16 창경원은 1909년에 창경궁 안에 세워진 동물원으로, 1960년대 이후 창경궁을 복원하자는 여론이 일어나 동물원은 현재 과천의 서울 대공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 모답풀이** ① 창경원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동물이나, 호랑이, 사자, 곰처럼 흔히 볼 수 없었던 동물을 전시하여 개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② 1960년대 이후 창경궁을 훼손하여 만든 창경원을 본래의 창경궁으로 복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⑤ (라)에서 창경원이 1909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이자 동양에서 일곱 번째로 세워진 동물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17 (라) ‘큐레이터’는 동물원에 어떤 동물을 들여오고 전시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 모답풀이** ① 동물원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식생 관리자’이다.
 ② 육상 동물을 주로 관리하는 사람은 ‘주 키퍼’이다. ‘아쿠아리스트’는 주로 해양 동물을 관리한다.
 ③ 동물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은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이다.
 ⑤ 동물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사람은 ‘수의사’이다.
- 18 (나)는 동물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물원의 존재를 옹호하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며, (다)는 이 견해들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모답풀이** ① 글에서 다를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론 부분이다. 그러나 (가)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본론 부분이다.
 ③ (가), (다), (라)에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나)에는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다.
 ④, ⑤ (가), (다)는 (라)의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나)는 (라)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 19 (라)에서 이 글의 글쓴이는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동물원이 동물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동물의 권리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④는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0 (라)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②도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린

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신윤복과 김홍도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 모답풀이** ①, ③, ④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⑤ 두 대상 간의 유사점을 근거로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 중 유추에 해당한다.

- 21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④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 모답풀이** ① 주장과 이유는 주관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
 ②, ③ 글쓴이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과 이유,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올바른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⑤ 사례가 적은 경우에는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다. 글쓴이가 제시한 사례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 22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설명 대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23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는 것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기 전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24 <보기>에서 디지털 감각 장애라는 현상이 왜 생겼고(원인) 그 결과(문제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므로 ‘인과’의 방법이 적절하다.

- 25 **서술형** <보기 1>과 <보기 2> 모두 구분을 활용해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 1>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의 종류만 나열하여 뒤죽박죽 섞인 느낌이 드는 반면, <보기 2>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실전에 강한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65~기족

01	⑦: 말소리, ⑧: 음운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①	07	④	08	④	09	①	10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⑤
18	①	19	③	20	④	21	②	22	①
								23	‘로 앵글’

‘로 앵글’은 대상의 우월성, 권위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선배들의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로 앵글’로 촬영한다.

- 01 **서술형** <보기>는 말소리와 음운의 개념과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다. 말소리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로 발화자와 발화시에 따라 다르게 난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이다. ‘님’과 ‘님’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 ’와 ‘ ’, ‘물’과 ‘불’이 다른 뜻

의 말이 되게 하는 ‘ㅁ’과 ‘ㅂ’ 따위를 이른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ㄹ’을 영어에서는 ‘l’과 ‘r’의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02 ‘ㅅ’은 입안이나 목청의 공기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마찰음이다.

모답풀이 ① ‘ㄴ’은 잇몸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② ‘ㅌ’은 파열음, 거센소리이고 ‘ㅈ’은 파찰음, 된소리로 소리 내는 방법과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③ ‘ㄴ’은 콧소리, ‘ㄷ’은 파열음으로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다.

④ ‘ㅈ, ㅊ, ㅉ’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파찰음)이다.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며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03 <보기>에 사용된 모음 ‘ㅐ, ㅏ, ㅓ, ㅣ’는 모두 입술을 둑글게 오므리지 않고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 내는 평순 모음이다.

모답풀이 ② 후설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와 ‘ㅏ’만 여기에 해당한다.

③ 원순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사용된 모음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소리 낼 때 혀의 높이와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보기>에 사용된 모음을 모두 소리 낼 때 혀의 높이와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⑤ 고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와 ‘ㅣ’만 여기에 해당한다.

04 첫소리는 잇몸소리 중 된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ㄸ, ㅆ’이 있다. 가운데 소리는 평순 모음, 저모음, 후설모음으로 이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ㅏ’이다. 끝소리는 유음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따라서 답은 ‘쌀’이다.

05 한글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 것이므로 중국의 문자를 응용해서 만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풀이 ①, ② ‘어리석은 백성이 밀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에서 알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말과 달리 한자로 쓴 글과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에서 알 수 있다.

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때마다 나라에서 알 수 있다.

06 모음의 기본자는 ‘ㅏ, ㅓ, ㅣ’로 3개, 초출자는 ‘ㅏ, ㅓ, ㅗ, ㅜ’로 4개, 재출자는 ‘ㅑ, ㅕ, ㅛ, ㅕ’로 4개가 있다.

모답풀이 ② 재출자는 초출자와 ‘ㅏ’를 합하여 만들었다.

③ 초출자와 재출자를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는 않았다. 기본자와 초출자를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고, 이를 재출자라고 한다.

④ 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하늘, 땅, 사람)을 상형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든 것은 자음자의 기본자이다.

⑤ 초출자를 만드는 원리에 소리가 세짐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자에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한 것은 자음자의 가획자이다.

07 ‘함께’에 쓰인 자음자는 ‘ㅎ’, ‘ㅁ’, ‘ㅠ’이고, 모음자는 ‘ㅏ’, ‘ㅓ’이다. 모음자 중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ㅓ’인데,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는 쓰이지 않았다.

모답풀이 ① ‘ㅠ’은 기본자 ‘ㄱ’을 병서하여 만든 글자이다.

②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입술소리의 기본자이다.

③ ‘ㅎ’은 기본자 ‘ㅇ’의 가획자이다.

⑤ ‘ㅏ’는 기본자 ‘ㅣ’와 ‘ㅏ’를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다.

08 이체자 ‘ㄹ, ㄴ, ㅇ’은 각각 기본자 ‘ㄴ, ㅅ,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모답풀이 ① 이체자는 초성과 종성에 모두 사용되었다.

② 다른 가획자와는 달리 기본자에 비해 소리가 더 세진다는 특성은 없다.

③ ‘ㄴ’, ‘ㅇ’은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ㄹ’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⑤ ‘ㄹ’은 리을, ‘ㄴ’은 반치음이 맞으나, ‘ㅇ’의 이름은 ‘옛이음’이다. 예린히읗은 ‘ㆁ’이다.

09 외래어와 줄임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10 ‘윤아’는 (마)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11 (다)에서 ‘윤아’는 특정 법률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돋기 위해 그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라)에서 청중의 반응을 살펴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다.

② (가)에서 착용 로봇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하여 발표하고 있다.

③ (다)에서 그래프를 제시하여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가)에서 청중이 알 만한 영화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12 (라)에서 발표자는 발표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착용 로봇 공학자와 관련된 학과들을 열거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② (나)에서는 착용 로봇의 개념과 착용 로봇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사전적 정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는 법을 설명하며 관련 학과의 구체적인 예(예시)를 나열(열거)하고 있다.

13 청중이 발표 내용을 듣고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면 청중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

모답풀이 ① 발표문을 그대로 읽는 것은 청중과의 소통을 방해한다. 발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선 처리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② 도입부에서 발표 순서를 미리 설명해 주면 청중이 각 내용의 순서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질문을 피하려고 내용을 줄이면 발표의 깊이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청중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청중의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⑤ 발음과 자료 표기가 정확해야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자료의 표기가 정확한지 사전을 찾으며 점검해야 한다.

14 (가)는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나)는 ‘싸그락’, ‘난분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가)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화자의 대답을 점층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화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통해 ‘눈’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감각적 심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미래 상황에 대해 상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첫사랑에 대한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는 각 연을 2행으로 동일하게 배열하여 구조적인 안정감이 느껴지지만, (나)에서는 시의 처음과 끝을 같거나 동일하게 배열하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15 (가)에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잊었노라’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그리움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역시 먼 훗날에도 결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을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16 이 시의 계절은 4연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는 봄이 되어 ‘봄꽃’이 피어나고 있으므로 ‘나뭇가지’가 ‘눈’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모답풀이 ① ‘눈’을 의인화하여 ‘나뭇가지’에 쌓이는 ‘눈’의 모습을, 눈꽃을 피우려는 ‘눈’의 도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의미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싸그락 싸그락’은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고, ‘난분분 난분분’은 눈이 훌날리는 모습을 소리로 나타낸 의태어이다. 즉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나뭇가지 위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햇솜 같은 마음’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눈의 순수한 희생과 현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황홀’에서 은유법을 사용하여 역경을 딛고 피워 낸 첫사랑(눈꽃)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전과 현신 끝에 피운 눈꽃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7 ⑦은 역설적 표현으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겪은 뒤 얻은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18 ‘양반’은 신분을 팔고 나서는 병졸들이나 하는 옷차림을 하고 ‘군수’ 앞에 엎드려 스스로를 ‘소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모답풀이 ② (바)에서 ‘부자’는 두 번째 문서의 내용을 다 듣기도 전에 허를 내두르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③ (라)에서 첫 번째 문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가 자신에게 이로운 것 이 있도록 문서를 고쳐 써 달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양반’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을 보고 한 푼 어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을 뿐 신분을 팔라고 하자는 않았다.

⑤ (나)에서 ‘양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쁘게 양반 신분을 ‘부자’에게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 양반은 관청에서 곡식을 꾸어다 생활했으나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서 잡혀 갈 처지에 놓였다.

모답풀이 ①, ② ‘부자’가 ‘양반’이 꾸어다 먹은 곡식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양반 신분을 판 ‘양반’이 ‘군수’에게 스스로를 ‘소인’이라고 낮춰 부르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강원도 관찰사가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내용을 살피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다)의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 것이며 쌀값이 얼마인지 알려 하지 말아야 한다.’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멀리하며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마)에서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내 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일꾼을 데려다가 김을 매게 할 수 있다.’에서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② ⑦에서는 양반의 의무와 규범들을 열거하고 있고, ⑮에서는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

③ ⑦은 허례하식에 얹매인 양반의 모습이, ⑮은 특권과 향락을 즐기며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⑦과 ⑮을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양반에 대한 존경심이 바탕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1 이 소설의 주된 표현 방식은 ‘풍자’이다. ‘양반’이 신분을 팔고 평민의 차림새로 굽실거리는 모습, ‘부자’가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에서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조선 후기 무능하고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모답풀이 ① 우화 기법은 동물이나 식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풍자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다.

③ 해학에 대한 설명이다. 해학도 풍자와 마찬가지로 웃음을 유발하지만, 풍자와 달리 대상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시선을 그 바탕에 둔다.

④ 역설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⑤ 반어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22 이 대화에서 학생들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여 교내 영상제에 제출하려고 한다. 촬영할 사람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도 모두 학생들로, 반드시 전문적인 배우나 제작진이 영상을 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 **서술형** 선배들은 당당하게 등장하며, 대사는 후배의 나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배는 당당하고 우월성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촬영해야 한다. ‘로 앵글’은 대상의 우월성, 권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S# 2’에서는 로 앵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4 클로즈업 솟은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는 화면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인물의 얼굴을 크게 보여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세밀한 표정과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25 ⑤에는 한 장면에 학생의 손과 빨대, 빨대가 꽂혀 있는 우유 등 여러 가지 대상이 나와 있고, 빨대만 확대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다.

MEMO

MEMO

MEMO